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

대한언론의 공정성 인식과 실천

뉴스타파 사례분석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김수지

대안언론의 공정성 인식과 실천
뉴스타파 사례분석

How Alternative Journalism Perceive and Practice Fairness
The Case Study of Newstapa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대안언론이 과연 언론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대안언론의 공정성 이해가 한국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대안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주창하는 뚜렷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공정하지 않은 언론행위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안언론이 추구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대안언론은 마치 공정성 논의에서 벗어난 예외영역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과연 대안언론이 주장하는 언론 공정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대안언론을 다루지 않고서는 한국 언론 공정성의 지형도를 그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Shoemaker & Reese의 다섯가지 요인 위계모델을 차용하여 대안언론의 특징으로 논의되어 왔던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주류언론에 대해 폭넓게 적용되어 왔던 Shoemaker & Reese의 모델을 대안언론 적용시켜 봄으로써 대안언론의 메시지가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론화하였다.

이후 대안언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지를 논한 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짚어 나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대안언론을 공정성 논의의 공백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함임과 동시에 대안언론의 지향과 대중과의 관계, 현실 상황 등이 주류언론의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류언론의 틀에서 논의되어 왔던 공정성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다.

대안언론의 공정성은 다음의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대안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저널리즘 원칙의 복원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둘째, 보도 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 사실과 루머, 믿을 수

있는 정보원과 불확실한 정보원, 분석과 추측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여 상호 감시와 견제를 이룬다. 이 세 가지는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대안언론의 존립 근거를 강화할 존립 요건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실제 대안언론의 작동 방식과 공정성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뉴스타파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언론 조직의 공정성 인식과 실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견해, 보도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직의 관행과 규범, 통제 역시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위해 뉴스타파를 참여관찰하고 동시에 심층인터뷰와 보도 내용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뉴스타파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정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보도 내용의 개괄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사실은 Shoemaker & Reese의 다섯가지 요인 위계모델에 적용하여 정리함으로써 이들이 주류언론 그리고 대안언론과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뉴스타파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 대안언론, 공정성, 뉴스타파, 다섯가지 요인 위계모델, 강한객관주의, 공공저널리즘, 참여관찰

학번 : 2014-20265

목 차

1장 문제 제기 : 대안언론은 언론 공정성의 예외영역인가?	9
2장 선행연구 검토	13
1절 저널리즘 원칙에 대한 세 가지 비판 조류	15
1.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17
2. 강한 객관주의(Strong Objectivism)	19
3. 대안언론(Alternative Journalism)	21
4. 소결	23
2절 대안언론 이론화 : Shoemaker & Reese 다섯가지 요인 위계모델	25
1. 기자 개인	32
2. 미디어 관행	34
3. 조직	35
4. 대외관계	37
5. 이데올로기	38
6. 소결	39
3절 대안언론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41
1. 대안언론의 공정성	41
2. 대안언론의 공정성 평가 기준	36
3장 연구 문제	50
4장 연구 방법	53
1절 연구 대상	53
2절 연구 진행	57

5장 연구 결과	61
1절 뉴스타파의 기자 개인	74
2절 뉴스타파의 미디어 관행	79
3절 뉴스타파의 조직	89
4절 뉴스타파의 대외관계	98
5절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	106
6장 연구 결론 : 뉴스타파의 공정성 논의와 평가	115
참고문헌	125
Abstract	138

표 목차

[표 1] Shoemaker & Reese (1996)의 다섯가지 요인 위계모형을 차용한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의 조직 비교	32
[표 2] 한국 사회에서 주류언론의 공정성과 대안언론의 공정성 비교	46
[표 3] 인터뷰 대상자 정리	60
[표 4] 언론사별 유튜브 뉴스 채널 기초정보 비교 (2015년 12월 10일 기준)	63
[표 5] 뉴스타파 유튜브 조회수 10만 이상 보도 (2015년 12월 10일 기준)	65
[표 6] 뉴스타파 메인 보도 내용	73
[표 7] 주류언론과 대안언론, 주류언론의 다섯 가지 위계 요인 모형	116

첨부 목차

[첨부 1] 경제, 부동산, 재벌 이슈 보도 내역	132
[첨부 2] 공직감시, 의회, 정당 이슈 보도 내역	133
[첨부 3] 교육, 문화, 미디어, IT 이슈 보도 내역	135
[첨부 4] 사법정의, 인권 이슈 보도 내역	136
[첨부 5] 안전, 의료, 복지, 노동, 환경 이슈 보도 내역	137

1장 문제 제기 : 대안언론은 언론 공정성의 예외영역인가?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대안언론이 과연 언론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대안언론의 공정성 이해가 한국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한겨레> 역시 대안언론이라 불렸음을 인지하면 한국사회 대안언론의 역사는 적어도 30여 년의 역사를 갖는다. 인터넷의 보급은 대안언론의 양적 증가를 낳았다. 현재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대안언론만 해도 <뉴스타파>, <국민TV>,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팩트TV>, <프레시안>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의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흔히 대안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주창하는 뚜렷한 편향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언론이 공정성 논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은 특정 미디어에 구속됨 없이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속성 때문에 법 해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대안언론은 주류언론이 제시하고 또한 요구 받아 온 공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마치 언론 공정성 논의에서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자연스럽게 대안언론과 공정성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안언론의 공정성이 무엇이며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안언론은 산발적으로 성장해 왔고, 이는 대안언론에게 공정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나는 꼼수다>가 전형적인 사례다. 2011년 4월 28일을 시작으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뚜렷한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기존 언론에서는 제공되지 않던 사실

들을 드러내 놓았다. 유머와 풍자로 사실과 가설을 넘나드는 이들에 대해 기존 언론은 그들의 정치색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내놓았고, 이런 와중에 나꼼수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다. 2011년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주류 언론이 권력 감시 등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언론으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평하며 나꼼수에게 제 21회 민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나꼼수가 언론공정성을 해치는 선동매체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등장했다. 대안언론의 공정성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논의의 맥락은 조금씩 바뀌어왔을지 몰라도 한국사회 언론문제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언론이 공정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이준웅, 2005). 나꼼수를 둘러싼 논쟁 역시 다만 반복되어 오던 공정성 논의가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미디어로 옮겨 간 것일 뿐이다. 나꼼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은 주류언론이 보여주지 못하는 비판적 언론의 모습을 팟캐스트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대안언론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었다(이병섭, 2012). 대안언론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기술과 만나 나꼼수를 낳았듯, 언론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대안언론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대안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논의되어본 바 없다. 대안언론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아 공정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대안언론이 이해하는 언론 공정성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대안언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과 전혀 다른 무엇일 수 있다. 또는 대안언론이 공정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주류언론이 취하는 방식과 다를 수도 있다. 과연 대안언론은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국 언론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공정성이 있었던 만큼 수 많은 연구들이 한국 언론의 공정성을 문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전 연구들을 분류하자면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개념화하기 위한 시도와(강명구, 1994; 윤석민, 홍종윤, & 오형일, 2012; 이준웅, 2005, 2013; 이준웅

& 김경모, 2008), 공정성을 실천해야 하는 주된 주체인 주류언론사가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들(남재일, 2008; 원희영 & 윤석민, 2015; 윤영철, 2004; 정동우 & 황용석, 2012)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들과 접근법을 조금 달리한다. 한국사회 언론 공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안언론 또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언론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언론 조직을 만듦으로써 대안언론을 확보하려는 시도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김은규, 2006).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대안언론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이는 언론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 이들은 주류언론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주류언론이 논의하는 가치와는 다른 무엇을 추구할 것이다. 대안언론 현상이 한국 언론이 겪고 있는 병폐를 드러내는 증상이라면, 이들을 진단하지 않고서는 한국 언론 공정성 문제의 맥을 짚어내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본 연구는 대안언론을 다루지 않고서는 언론 공정성의 지형도를 그릴 수 없다는 데에 인식과 입장을 함께한다(Harcup, 2011).

이와 같은 인식 아래,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안언론이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만약 그들 나름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를 실천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안언론을 주류언론과의 비교를 통해 정의하고, 주류언론과의 차이 속에서 이들의 공정성 이해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안언론을 주류언론에 종속시켜 이해한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법이 대안언론을 주류언론에 미치지 못하는 아류이거나 언론이 아닌 것으로 저평가하게 된다는 문제의식 또한 존재한다(Downing, 2008).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대안언론을 주류언론과 비교하여 드러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로는 대안언론의 등장에는 항상 주류언론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아서 함께 다뤄져야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안언론의 존재 목적과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류언론의 공정성을 일괄 적용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다. 대안언

론은 주류언론을 비판하며 저널리즘의 복원을 추구하며, 주류언론에 비해 훨씬 소규모의 적은 자금으로 운영된다. 대안언론이 주류언론과 존재의 목적과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언론으로 취급하는 것은, 언론사의 차이를 가리고 공정성을 일괄적용 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대안언론과 주류언론의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정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서 본 연구는 주류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대안언론이 언론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대안언론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맥이 끊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며, 대안언론의 공정성 인식과 실천을 논의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안언론 자체가 워낙 정의되기 힘들다 보니 이론적 논의 역시 다양한 맥락의 논의들이 혼재되어 있어 연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20년대 이후 자리잡은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대안언론이 이러한 비판의 조류들 중 하나임을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 그 다음 대안언론을 개념화하고, 대안언론의 조직 운영과 이들이 추구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취한다. 보도의 내용에는 기자 개인의 이념이나 가치, 견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Meyers, 1992) 조직의 관행과 규범, 통제 역시 영향을 미친다(Carey, 1986; Epstein, 1973; Shoemaker & Reese, 2011; Sigelman, 1973). 참여관찰은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2장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저널리즘에 가해지고 있는 비판을 세 가지 조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비판의 조류들 중에서 현재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도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 대안언론(alternative journalism)임을 보인다. 그 다음 대안언론을 정의하기 위한 이론화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대안언론의 공정성은 무엇이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지를 논의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러한 논의가 과연 한국의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명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미국 언론 학계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은 주로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해당하며 공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과 같은 가치들은 이와 더불어 부차적으로 다뤄진다. 언론의 객관보도 원칙은 저널리즘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다뤄지면서 세계의 언론 지형을 모델화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했었으나, 연구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각국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의 객관성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Hallin & Mancini,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미국의 객관보도 원칙과 그것에 대한 비판을 분석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 공정성 연구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준웅(2013)은 미국의 객관보도 원칙이 명예훼손과 같은 법정 분쟁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언론 환경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선거방송이 언론의 위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이슈임을 지적한 바 있다(이준웅, 2013).

언론 환경에 따라 언론이 중시하는 가치의 의미와 위상이 다르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하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매카시즘과 워터게이트 사건,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 부활 논의, 9·11테러와 대테러 전쟁

을 겪은 미국의 언론 환경과 식민지배 경험과 광복, 이후 군부정권에 의한 언론통제, 발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2004 대통령 탄핵보도, 광우병 파동과 PD수첩의 보도, 황우석 사태,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월호 참사 보도를 겪은 한국의 언론 환경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적합한 공정성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언론이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공정성 원칙을 비판하고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한국사회의 언론 공정성 논의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일부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즉,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언론이 지켜내야 할 구체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객관성,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이 하나로 정의되지 않은 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사회의 공정성도 마찬가지로 언론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록 대개의 연구들이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갖는 논리적 모순을 살펴보는 데에는 별 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1절 저널리즘 원칙에 대한 세 가지 비판 조류

우선은 대안언론에 대한 이론화 작업으로 바로 착수하지 않고 전통적인 저널리즘 가치에 가해지고 있는 비판들을 살펴보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대안언론은 상당히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로, 집단 내 이질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대안언론 연구에는 온라인 저널리즘, 주창 저널리즘, 참여 저널리즘, 공공 저널리즘, 시민 저널리즘 등 다양한 형태의 저널리즘 논의가 뒤섞여 있다. 전통적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의 조류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자가 나름대로 대안언론의 영역을 좁혀나가기 위해 취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가해지고 있는 다양한 비판의 조류들 중에서도 대안언론에 관한 논의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비판 조류들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안언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국의 대안언론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객관주의는 1920년대 미국 언론에서 언론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는다. 저널리즘의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도 객관성이 중심 가치가 된 데에는 당시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의 영향력이 컸다. 미국 언론은 객관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나치의 프로파간다 캠페인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며(Atton, 2005), 널리 확산되고 있던 중이었던 경험적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페니 신문(penny press)의 등장으로 정치색을 띠지 않은 채 독자 일반에게 다가갈 경제적 유인을 얻게 되었다(Schudson & Anderson, 2009). 언론에 대한 잇따른 명예훼손 소송과 이로 인한 법제도 개편도 영향을 미친다(Aucoin, 2007).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전보를 통한 정보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글의 길이가 곧 돈이 되었고, 가장 건조한 사실 중심의 보도 관행이 자리잡게 된다(Carey, 1986).

다층적인 요인들로 인해 객관주의 미국 언론의 이상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보도되는 대상이나 현상과의 거리유지, 중립적인 태도, 정치 및 경제 권력으

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와 같은 자유주의 언론관이 정교화되기 시작한다. 이로써 저널리즘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여 제시하고 가치판단을 최대한 지양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진실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서게 된다(Schudson, 1981).

그러나 객관성이 언론의 이상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이 객관주의가 도전받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의해야 할 것은 객관성이 언론 활동에 내재적인, 항시 존재해왔던, 협상 불가능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다(Kperogi, 2013). 1920년대 미국에서 언론의 객관보도 원칙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Carey는 객관보도 원칙이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개인의 동기(motive)로 잘못 이해함에 따라서 거시적인 맥락은 설명하지 않고 다만 누구(who)에 근거를 둔, 개인화된 사건 서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Carey, 1986). McChesney는 저널리즘이 공식적인 정보원들과 유착되기 마련이며 사건을 마치 처음 등장한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전달함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데올로기적 맥락이 탈락하게 됨을 지적하며, 언론 보도는 다만 체제유지에 봉사하고 있을 뿐 결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McChesney, 1999).

Carey와 McChesney의 비판이 언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언론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라면, Tuchman은 언론의 객관주의가 잘못 이해되고 있으며 다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드러내어 본격적인 비판을 가한다. 그는 객관주의가 언론사의 책임회피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지적한다. 저널리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상관 없이 다만 예상되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언론의 객관주의가 "상충되는 사실들의 공격 속에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마늘을 목에 거는 것과 같다 (p. 660)"고 까지 표현한다(Tuchman, 1972).

이러한 비판은 객관보도 원칙이 실질적으로는 뉴스조직의 정치적 견해나 기자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이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서 탁월하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객관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언론의 객관보도 원칙에 대한 비판의 흐름

에는 객관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보도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리한 논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객관주의 원칙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을 확보한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둘러싼 논쟁은 마치 "시지푸스의 형벌"과도 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Muñoz-Torres, 2012).

본 연구는 객관보도 원칙을 비판하는 흐름을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강한 객관주의(Strong Objectivity), 대안언론(Alternative Journalism) 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언론의 핵심적인 원칙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비판의 강도와 비판의 결과 요구되는 언론 개혁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공공저널리즘이 가장 약한 비판 강도와 개혁 의지를 보인다면 대안언론이 가장 강한 비판 강도와 언론개혁 의지를 보인다.

1.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공공저널리즘은 1988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하여 등장하였으며, 언론의 기능은 시민의 공적 사안에 대한 관여를 높임으로써 공중이 공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저널리즘 내부의 반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Rosenberry & St John, 2010). 공공저널리즘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사심 없는(disinterested) 태도로 일관하며 단순한 뉴스 전달자에 머물러 버림에 따라 오늘날 공적 생활(public life)의 위기에 일조했다고 판단한다 (Merritt, 1995). Merritt에 의하면 저널리즘의 신뢰도 하락과 민주주의가 경험하는 오작동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언론은 단순한 뉴스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다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저널리즘은 단지 진실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시민과 정부, 관

료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저널리스트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 운동이다 (Merritt, 1995; Rosenberry & St John, 2010).

공공저널리즘의 문제제기는 객관보도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객관보도는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 직접 The Philadelphia Inquirer's에서 공공저널리즘 실천에 참여했던 Woodstock은 신문 안에 시민과 시민, 정부 관료, 후보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고란을 만들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공통의 의제에 대한 대화야말로 가장 탁월한 문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Woodstock, 2002).

공공저널리즘의 주장은 언론의 객관보도원칙이 언론보도를 단순한 사실 전달수준에 머물게 만들어버림에 따라서 중요한 공적 사안을 논의할 공론장을 형성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들은 객관주의원칙을 폐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공정한 마음 (fair-mindedness)을 강조하며 객관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공공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를 공동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며 다만 공동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임을 주장한다(Glasser, 1999). 공공저널리즘은 결국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형성한다는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다(Rosenberry & St John, 2010). 이처럼 공공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업무는 보도와 반영(reportorial and reflective)으로 이해하며 정치 조직화나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주창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을 경계한다 (Merritt,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정치참여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겠다는 이들의 목표가 어떤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어쩌면 모두가 환영할 수 있을 표현들에 대해 모호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공공저널리즘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며, 저널리스트가 소통의 장을 기획하는 역량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공공저널리즘은 전통적인 저널리즘 영역 안에서 주류저널리즘과 유사한 실천을 보이는, 주류 저널리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평을 받기도 한다(민인철, 2007).

2. 강한 객관주의(Strong Objectivity)

강한 객관주의에 대한 요구는 과학철학의 객관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입장 인식론(Standpoint Epistemology)에 근거하며, 과학철학에서의 성찰을 저널리즘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입장 인식론은 Kuhn의 패러다임 개념에 크게 의지한다. Harding은 Kuhn의 패러다임 개념을 통해 과학이 주장하는 객관성이 마치 모든 사회·정치적 가치를 배제하여 그것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결과만을 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것에 주목한다(Harding, 2009). 객관주의는 권력관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십상이며,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연구는 실질적으로는 서구-백인-중산층-남성의 시각으로 해석한 세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Harding의 주장이다.

어떤 사회 현상도 이론과 가치 판단 없이 연구자에게 포착될 수는 없다(Muñoz-Torres, 2012). 그럼에도 진리의 부재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입장 인식론은 어떻게 진실을 포착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 인식론은 어떠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순결한 과학자라는 불가능한 이상보다 오히려 다층적인 권력관계를 몸소 겪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the marginalized)이 더욱 엄격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사회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과학은 소외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권력관계의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된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정치·경제·문화 권력이 연구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 오히려 더욱 강한 객관주의(strong objectivity)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한 객관주의는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과학의 진실을 추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이다(Harding, 2009).

Durham은 입장 인식론이 제시하는 강한 객관주의에 대해 공감하면서 저널리즘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역시 강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Durham, 1998). 그에 따르면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이해되는 공정성은 단지 부딪히는 여러 사회적 의견들을 아우르기 위한 상대주의적인 해법에 불과하다(p. 124). Durham에게 저널리즘이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인식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고립을 이해하고 싸우는 것이다. 미국이 911 테러를 경험한 바로 다음날부터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날까지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Ryan의 주장도 강한 객관주의와 유사하다. 그는 언론이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는 순간에 객관주의를 버렸다고 비판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객관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정보원인 정부의 전쟁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이것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며 소수의 견해가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강한 객관주의와 유사하다(Ryan, 2006).

Durham은 공공저널리즘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공공저널리즘도 전통적인 객관성을 포기하지는 못했으며, 이것은 공공저널리즘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에 위치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저널리스트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는,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도해야 함을 강조한다(p. 132).

혹독한 비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객관성에 대한 요구는 그러나 저널리즘 제도에 대한 수정 요구 또는 주류언론의 체제개편으로까지 이어지는 않는다. 이들은 저널리스트의 자기성찰과 교육,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Harding이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끝까지 상대주의, 당사자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과학자에 의한 지식추구를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대안언론(alternative journalism)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미디어의 채널 희소성은 상당히 와해된 듯하다. 수용자 분화와 적소 매체(niche media)의 등장은 저널리즘이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환상이며 실현 불가능해졌음을 드러낸다(Kperogi, 2013). 더군다나 정치적인 주관을 뚜렷이 하는 것이 상업적 차원에서 수용자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자(Iyengar & Hahn, 2009; Waisbord, 2009) 일부 저널리즘의 경우 더 이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과 같은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흉내 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시민저널리즘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일반 이용자가 수행하는 저널리즘 행위를 지칭하는 시민저널리즘은 시민 개인의 입장과 견해를 대변하면서 탈객관적인 내용들을 보도한다(Goode, 2009; 김민하 & 신윤경, 2011). 이와 같은 흐름은 언론의 객관보도원칙, 공정성, 균형성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비판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나, 인터넷과 신생매체의 등장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흔들어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임은 분명하다.

이런 환경을 틈타 언론의 객관보도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특정 집단,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저널리즘 형태가 다시 부각된다. 앞서 제시한 정파적 보도채널의 등장은 보다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고(Waisbord, 2009), 시민 저널리즘이 저항적 행위로 해석하기에는 주류언론과의 관계설정이 모호한 것에 반해(Goode, 2009), 대안언론은 주류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 비판하기 위한 실천양태로서 등장한다.

베트남전쟁과 신사회운동의 대두, 메카시즘의 사기극과 워터게이트 등은 언론이 단순히 정부를 홍보하는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성찰을 낳는다. 그리하여 1960년대 대안언론의 황금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들은 객관

주의에 도전하고 전쟁, 자본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 반대했다 (Aucoin, 2007). 대안언론은 저널리스트가 특정 집단 특히 미디어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직접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언론을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공익 서비스로 이해하고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류 언론의 이상과는 다른, 저널리즘의 가치 자체에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Waisbord, 2009).

대안언론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객관성의 핵심적인 전제에 도전한다(Atton, 2005; Atton & Hamilton, 2011; 강명구, 1994). 즉, 기존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관계와 유착된,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을 반영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안언론의 현실 분석이다. 따라서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보만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적인 언론보도는 권력에 저항하는 언론 보도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디어 권력의 비대칭의 균형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된 편파보도"를 실천한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공정한 보도 (p.316)"라고 주장한다(Eliasoph, 1988). 대안언론은 반전, 여성주의, 환경, 민족, 성소수자 등 신사회운동과 함께 명맥을 유지해 나간 주창저널리즘과도 맥을 같이한다(Waisbord, 2009).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들은 객관성이 백인-서구-남성-중산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강한 객관주의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입장 인식론자들이 저널리스트의 자아성찰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것에 반해 대안언론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급진성을 보인다. 즉, 저널리스트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맥락을 인지하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강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 인식론자들과는 달리 대안언론은 언론조직과 보도형태를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한다. 언론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위계적인 조직관계 속에서 민주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Atton & Hamilton, 2011). 이들은 비판 정치경제학에서 언론에 가하는 비판들과도 맞닿아 있다. 언론의 소유구조,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언론 조직이 지배권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언론보도 관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생 미디어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소수의 의견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대안언론이 속속 등장하고 2000년대 이후 대안언론을 다루는 연구 논의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한다.

4. 소결

전통적인 저널리즘 가치는 오랜 비판의 담론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공공저널리즘은 언론이 객관보도를 하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시민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동체 논의의 장을 직접 마련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강한 객관주의는 언론의 객관주의가 권력 위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언론 조직이 권력관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성해야 함을 주장한다.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문제제기는 대안언론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저널리스트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이상과 개념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공공저널리즘, 강한 객관주의, 대안언론의 존재는 오늘날 통용되는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들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를 대체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세 개의 조류 중 현재의 한국 언론 환경을 분석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이론적 틀은 무엇일까? 세 가지 조류 모두 나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는 대안언론 논의가 가장 적합한 분석틀이라고 판단한다. 그 까닭은 공공저널리즘 및 강한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언론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 언론 공정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언론사들이 대안언론을 자임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대안언론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들의 언론 보도가 사회의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언론 보도 행위를 두고 보았을 때에 노골적으로 특정 입장을 우호적으로 다루면서 정치경제 권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이 겪어 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종속과 그 이후 스스로 권력 집단화하는 모습은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인식한 논의를 촉진시켰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담론들이 누적되어왔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앞서 다루었던 한국사회의 언론 공정성 논란을 "대안언론"의 논의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제부터는 과연 대안언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2절 대안언론 이론화 : Shoemaker & Reese 다섯 가지 요인 위계모델

대안언론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Downing, 2008). 물론 인터넷이 대안언론 활성화를 이루어냈다는 식의 기술결정론적인 접근은 위험하다. 대안언론은 진공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술, 실천, 제도적인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든 그것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다. 예를 들어, 팟캐스팅은 여느 신생 매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등장과 함께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되었다(Sterne, Morris, Baker, & Freire, 2008). 그러나 대안언론은 사회와 기술 사이의 복잡한 영향력의 산물이자 제도다(Downing, 2008). 신생 미디어가 형성하는 담론 공백의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며, 기술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이끌 것이라는 접근은 대안언론의 문화적인 가능성을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변화가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저널리즘이 현실을 바로 만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은 저널리즘이 현실을 만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어떤 시공간에서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을 포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의 여부는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Creech 2014).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적소 매체가 대안언론 그리고 대안언론 연구의 증가를 이끌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대안언론 논의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언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기 힘들다. Downing은 그 까닭을 대안언론의 근간이 되는 사회 운동 자체가 변동을 거듭하며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Downing, 2008). "대안(Alternative)"라는 표현 역시 기존의 "주류(Mainstream)" 매체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괄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불분명하다(박춘서, 2006). Harcup의 연구는 대안언론 종사자들도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주류언론에 대한 부

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정적 정의(Self-fulfilling negative definition)를 가지고 있거나, 일단 보면 알 수 있다는("I know them when I see them") 식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Harcup, 2011). 결국 대안 언론은 전통적이고 주류적인 언론과 다른 모든 속성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대립(anti)의 의미로 인해 독자적인 의미영역을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박춘서, 2000).

더 나아가 대안언론을 정의 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대안언론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대안언론을 정의하는 과정은 보통 기존 언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 가치에 기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안언론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언론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Downing, 2008).

그러나 대안언론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그것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때문에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대안언론을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설명 보다는 이들을 정의하기 힘들만큼 집단 내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Downing은 앞선 그의 저서에서 대안 언론의 종류를 타블로이드형태의 인쇄 신문뿐만 아니라 리플렛까지 대안언론으로 다루었다. Atton과 Hamilton은 팬덤에서 자체 생산하는 인쇄물과 개인 블로그도 대안언론으로 정의하고 있다(Atton & Hamilton, 2011). 더군다나 최근 대안언론은 트위터나 Youtube, Flicker와 같은 새로운 매체들을 찾아 나서며 주류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도(Poell & Borra, 2012) 대안언론의 정의를 어렵게 한다.

대안언론은 특정 매체에 국한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넘나들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매체에 국한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콘텐츠 형식 면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모든 것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안언론 종사자 스스로도 대안언론을 정의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대안언론이라고 지칭하지도 않는다(Harcup, 2011). 그런 까닭에 대안언론 연구자들은 대안언론을 개방적인 형태로 정의하거나 혹은 대안언론의 사례들을 열거함으로써 그것의 윤곽을 보여주는 접근을 취한다.

따라서 대안언론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춘서는 Flieger의 연구에서 빌려 탈중심화, 작업의 민주화, 탈전문화, 탈자본화, 실천적 저널리즘의 다섯 가지 대안언론의 기본 속성을 소개하고 있다(박춘서, 2006). 각각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구분을 지양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언론, 언론 조직 내에서의 권위적 위계를 탈피하고 생산과정의 민주화 보장,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작성한 보도 글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개인이 느끼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조명, 미디어 소유 자본 및 광고로부터 자율성 확보, 사회 운동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직접 사회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위의 다섯 가지 속성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안언론 연구자들은 다섯 가지 속성들 중에서도 마지막 속성인 실천적 저널리즘을 가장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안언론의 목적은 미디어 권력의 비대칭을 드러내고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참여적 실천에 있다. Fuchs는 설령 언론이 아무리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미디어 생산 구조와 그 배후가 되는 사회 전반의 구조를 비판하는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면 대안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지식생산의 수단인 언론을 부르주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대안언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Fuchs, 2010). 이는 언론이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process)보다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생산해 내는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Fuchs의 주장은 상당히 급진적이며 이것이 합의된 의견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대안언론의 목적을 파악하는 도움을 준다. 대안언론의 핵심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의식(political vision)에 있다. 이런 까닭에 윤영철은 대안언론을 사회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적 기관이자 피지배세력을 변론, 옹호하는 언론관을 가진 것으로 보고 급진적 민주주의로 설명하고자 했다(윤영철, 2007). 대안언론은 정치 및 경제 권력에 종속된 주류언론을 비판하는 자생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대안언론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경향을 가진 모든 미디어를 아우르기도 한다(Downing, 2003). 한국의 언론학계에서도 대안언론은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시민의 정치토론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며, 제도화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반대하는 도전적인 시도를 아우르는 것으로 다루어진다(김은규, 2006; 민인철, 2007; 민인철 & 반현, 2006; 박선희, 2001; 박선희 & 주정민, 2004; 박춘서, 2000, 200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대안언론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제도화된 언론조직을 비판하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치참여 및 토론을 촉진하고자 하는 언론"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때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제도화된 언론조직"은 주류언론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대안언론 정의는 대안언론을 주류언론에 종속시켜 정의하게 된다는 한계를 노정하며 대안언론이 주류언론보다 민주적이라는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안언론의 공정성 인식과 실천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안언론에 대한 개념화와 이론화가 반드시 요구되며, 이는 주류언론과의 대응을 통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밝힌다. 앞서 문제의 제기에서 밝힌 것처럼, 주류언론과의 대조를 통해 대안언론을 이해하는 것은 주류언론의 대안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을 반영하고 또한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주류언론의 것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는 연구의 편의와 한국의 언론 공정성이 맞닥뜨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지 두 언론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함이 아니다.

대안언론과 주류언론을 대조하기 전에 대안언론이 많은 부분에서 주류언론과 동일한 속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살필 필요가 있다. 대안언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류언론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는 대안언론이 형식과 취재방법론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형식과 취재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 언론의 것을 상당 부분 차용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안언론은 보도 형태 면에서는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그리고 취재 방법론에 있어서는 탐사 저널리즘을 차용했다(Atton & Hamilton, 2011).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주류언론에서 대안언론으로, 또는 대안언론에서 주류언론으로 오가고 있다. Harcup은 대안언론의 교차 집단

(Crossover Grouping)으로서의 속성을 지적하며 대안언론과 주류언론이 같은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Harcup, 2005).

두 번째 지점은 대안언론이 기존의 저널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종종 대안언론이 추구하는 가치로 시민의 직접 참여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안언론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저널리즘이든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이 최우선의 목표이자 스스로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였다. 오히려 시민 저널리즘이 바라는 것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회복일 가능성이 크다(recuperative than transformational). 즉, 대안언론은 저널리즘의 상실을 두려워하며 이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실천적 운동이다(Rosenberry & St John, 2010). 따라서 대안언론은 전통적으로 저널리즘이 달성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을 공통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가치를 공유한다.

다만 이들은 주류언론의 보도 행태와 조직 운영으로는 저널리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뉴스 보도에 있어 다른 보도 행태, 조직 운영을 취하게 된다. 또한 공정성에 대해서도 상이한 접근법을 취한다. 즉, 이들은 주류언론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는 공통으로 추구하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객관주의와 공정성, 균형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대안언론에 대한 개념화가 어려웠던 만큼 과연 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용이하지는 않다. 대안언론은 매체가 만들어내는 틈새를 파고들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영향력을 확보하기도 하며, 또는 영향력을 얻지 못하거나 쇠하여 곧잘 사라진다. 그래서 이들의 조직 운영이 어떠한지에 주목하고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연구 내용도 파편화되어 있다. 결국 대안언론의 조직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론적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스보도는 임의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저널리스트가 우연히 보도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기저에는 저널리스트가 속해 있는, 그리고 메시지가 거치게 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보도 뉴스가 공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데에는 필연적으로 저널리스트가 뉴스 생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언론 조직의 영향력이 작동하게 된다. 이를 두고 Schudson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은 왜 언론사의 보도가 공정성, 객관성과 멀어지는지 또는 어떻게 사회 지배적 집단의 존재 속에서도 공정성, 객관성을 달성하며 세상을 그려내는지 답하고자 하는 것(p. 11)"이라고 말한 바 있다(Schudson, 1997). 결국 언론사는 어떻게 공정성을 인식하며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또는 언론사의 뉴스보도가 왜 공정성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언론 조직 운영을 알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대안언론 연구들은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며 수용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정작 메시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계 역학을 보는 데에는 소홀했다. 언론사의 메시지 생산 과정에 주목한 연구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연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에 머문다(Shoemaker & Reese, 2011). 그 중에서도 대안언론 조직과 이들의 메시지 생산 과정을 직접 조사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대안언론의 조직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대안언론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대안언론의 조직 운영과 저널리스트 개인과 언론 조직 사이의 관계 역학에 주목하여 직접 참여관찰한 연구는 Eliasoph의 연구가 유일무이하다(Eliasoph, 1988).

따라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안언론에 대한 이론화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연구에서는 대안언론이 전혀 다루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안언론 연구에서도 대안언론은 주류언론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안언론 연구는 곧잘 연구자의 정치적 신념과 연결되어 주류언론의 조직체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언론이 주류언론에 비해 민주적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언론사 일반에 적용 가능한 분석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hoemaker & Reese 미디어의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 위계모형을 차용하여 대안언론의 조직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고자 한

다(Shoemaker & Reese, 2011). Shoemaker & Reese는 언론사의 메시지가 생산에는 기자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 언론 조직의 보도 관행, 언론사 조직의 목표와 성격, 언론사 외부 조직과의 관계, 이데올로기의 다섯 가지 요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는 주류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섯 가지 요인의 위계모델이라는 분석의 틀을 대안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의 메시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조직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Shoemaker & Reese (1996)의 다섯 가지 요인 위계모델을 차용한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의 조직 비교

요인	주류언론	대안언론
개인	엘리트주의(elitism)	보편주의(generalism)
	전문성(professionalism)	탈전문적(deprofessionalism)
	중립적, 정보전파(dissemination)중심적	당사자 대항주의(adversary) 옹호적(advocacy)
미디어 관행	통일된 스타일	창의적 스타일
	전통 미디어를 제 1창구로 함	새로운 미디어를 제 1창구로 함
	객관주의 전략	해석주의 전략
	사후 보고적(reporting)	사전 동원적(mobilizing)
	공공기관이나 공인을 대상으로 함 정보원의 발표에 의존	주변부 집단, 피해 당사자 대상 기자의 탐사보도 또는 독자기고
조직	이윤 정향적 광고와 구독료에 의존	자본 독립적 회원 후원, 모금, 사재부담
	위계적 편집 시스템 위에서부터의 의제설정 체계화된 조직 운영	공동 편집 시스템 아래서부터의 의제설정 실험적 조직 운영
	작업 분담 개별 책임	공동 생산 집단적 책임
	대외관계	시장 종속적
	법 해석의 경계가 분명한 편	법 해석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데올로기	객관성, 중립성 체제유지적	정파적, 편향적, 가치규정적, 체제전복적

1. 개인(Individual)

언론 조직이 저널리스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널리스트는 조직 안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행사한다. 저널리스트의 전문성과 표현의 자유는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당위를 제공한다. 따라서 메시지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첫 요인은 저널

리스트 개인이 어떤 생각과 세계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에서부터 출발한다. 다만 언론사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저널리스트 개인의 입장이 언론사의 입장과 유사한 사람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사가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탈락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부터 저널리스트가 선택적 지원(selective recruitment)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Sigelman, 1973). 따라서 저널리스트 개인은 구성원들 간의 견해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언론 조직의 견해에 상당히 동의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있어 저널리스트 개인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때로는 언론 조직의 입장에 반한 뉴스 보도를 시도할 수도 있다(Eliasoph, 1988; Meyers, 1992). 이런 까닭에 저널리스트 개인은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

주류언론에서 기자는 상당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해되며 대체로 고학력의 엘리트 집단이다(Shoemaker & Reese, 2011). 이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택하여 보도한다. 그러나 이들은 공중의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나 스스로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자의 위치에 놓으며, 따라서 정보전파(dissemination) 중심적이다. Gans는 저널리스트가 스스로를 "사심이 없는", "객관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글을 쓰는 게 좋아서 저널리스트가 된 것이지 사회변혁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다(Gans, 2004). 이는 대안언론의 저널리스트들이 스스로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활동가로 정체화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Harcup, 2005).

이에 비해 대안언론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는 상대적으로 탈전문적인 경향을 보인다. 대안언론에서 저널리스트는 저널리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는 상당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류언론에 비해 시민기자의 참여가 적극 반영되며 특히 부당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보도하는 것이 환영된다(박춘서, 2000).

2. 미디어 관행(Media Routines)

언론은 시공간의 제약과 미디어 희소성으로 인해 일정한 관행(routines)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주류언론의 경우 특정 매체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쇄미디어는 인쇄미디어의 제약을, 영상미디어는 영상미디어의 제약을 갖는다. 육하원칙에 따른 서술이 이루어지나 어떻게(how)와 왜(why)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정보만을 제공한다(Carey, 1986). 보도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리드, 역피라미드형 구성,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고루 제시하는 공정성 전략도 주류언론의 미디어 관행 중 일부다. 이러한 관행은 위계적인 조직 구성, 데스크의 존재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기관은 주류언론에게 빠르고 정확한, 공신력 있는 정보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결과 정부기관은 언론 보도를 고려하여 의사사건(pseudo-event)을 열고 언론 보도 형식에 맞춘 기자회견 자료를 마련한다(Iyengar & McGrady, 2007). 또한 주류언론은 이미 일어난 사건(event)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스로가 사건을 주도하거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을 지양한다.

반면 대안언론은 다양한 미디어 특히 신생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보도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형식적 제약을 덜 받는다. 또한 위계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비판적이며 데스크가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 비판적이므로(Harcup, 2011; 박춘서, 2000), 이들의 미디어 관행은 주류언론의 그것보다 덜 체계화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 작성에 있어서도 대안언론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보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직접 경험한 바를 서술하며 삶과 현장을 연결하는 해석주의적인 메시지를 지향하게 된다(박춘서, 2000). 이런 과정에서 주된 정보원은 정부기관 보다는 주변화된 사람들이나 피해 당사자가 다수를 이루게 되며 이들이 경험한 바에 대한 증언이 보도 내용의 주를 이룬다(Dahlgren, 2013). 대안언론이 정부기관을 출처로 하는 보도를 할 때에는 주로 그들의 비리나 비효율적 운영을 비판하는 보도

작성을 목적으로 할 때가 많다.

대안언론의 특성 중 하나는 동원하는 보도(mobilizing report)를 한다는 것인데, 직접 정치운동을 조직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움직임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Fuchs, 2010; Harcup, 2011; 민인철 & 반현, 2006; 박선희 & 주정민, 2004; 박춘서, 2000).

3. 조직(Organization)

미디어 조직은 기자의 보도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Sigelman은 저널리즘은 어쩔 수 없이 편집자의 정치 철학의 연장에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기자가 작성한 뉴스에 대해 조직 전체가 걸러내는(filtering)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Sigelman, 1973). 조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기자 개인의 가치관은 용인되지 않으며, 무엇이 어떻게 취재되어야 하는가는 상당 부분 조직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Epstein, 1973).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한 강령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은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또는 느끼지도 못한 채 사회화 된다(Carey, 1986; Epstein, 1973; Sigelman, 1973).

조직의 기자 개인에 대한 사회화는 주류언론과 대안언론 모두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주류언론이 위계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안언론은 조직 구성원들 간 관계가 민주적이고 공동편집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 조직과 기자의 긴장관계 속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안언론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 역시 주류언론과 대안언론 모두에게서 발생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게이트키퍼(Gate Keeping)의 은유는 마치 특정 주체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거르는 것처럼 이해하게 하지만 사실은 조직 운영 시스템의 역학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Goode, 2009). 다만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 뒤에서 다루게 될 조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게이트키퍼에서 걸러지는 의제

는 체계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다. 박선희는 대안언론의 의제설정을 두고 아래서부터의 의제설정(bottom-up Agenda Setting)이라고 일컫은 바 있다(박선희, 2001).

주류언론이 위계화된 역할 분담을 갖고 있어 책임소지가 분명한 것과 달리, 대안언론은 공동편집, 공동작업을 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지가 기자 개인에게 귀속된다기 보다는 집단에게 귀속되거나 불분명한 경향이 있다(Atton & Hamilton, 2011; 박춘서, 2000).

주류언론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주로 광고에 의존한다. 주류언론에게 광고주와의 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재정적인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광고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적당한 거리두기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 누누이 비판 받아 온 것처럼 주류언론이 과연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Curran은 기업의 광고가 없었다면 저널리즘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시장에 뿌리를 둔 언론관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정당화 기제에 불과하며, 정치경제권력이 언론을 사회통제의 도구로 바꾸기 위해 그리고 대안언론의 성장을 막기 위해 언론을 상업화했음을 영국의 언론사를 통해 보여준다. 이에 따라 Curran은 감시견(watchdog) 모델을 수정하여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 모두를 감시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urran, 2002). McChesney 역시 미국의 미디어 시장이 독과점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미디어 시장의 고도상업화(hyper-commercialization)가 저널리즘과 공공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상업적 가치에 맞게 미디어가 편집됨에 따라 방송이 광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비판한다(McChesney, 1999). 위축효과는 정부보다도 기업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p. 60).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대안언론은 주류언론의 경제적 종속을 비판하며 경제적 자립을 중시한다. 진보적인 대중지, 진보적인 대중매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임영호, 1998). 그 결과 대안언론은 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거나 모금 활동, 또는 기자들의 자비로 운영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자 한다.

4. 대외관계(Extramedia)

저널리스트는 언제나 현실을 구성하지만 이는 저널리스트 혹은 언론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다. Gans는 보도 가능성(availability)을 위해 기자가 정보원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됨을 보이고, 여기에는 권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적합한 정보, 근접성 등의 판단이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Gans, 2004).

주류언론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지향성을 보인다(market-oriented). 반면 대안언론의 경우 종종 특정 정파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정계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나는 꿈수다> 사례가 드러내는 것처럼 대안언론은 아예 대놓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정치 지향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politically oriented).

법의 해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주류언론의 경우 그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경계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를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거나 최소한 언론사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주류언론은 법적 해석의 여지가 분명하며 책임의 경계 또한 분명한 편이다. 언론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피해 당사자는 누구든 국가에게 언론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심의 기구가 따로 존재할 만큼 주류언론은 법의 영역에서 해석되고 규제된다.

반면 대안언론의 경우 법률적 해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과연 국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며 항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대안언론은 매체 특성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신생미디어 채택이 빠르다. 이러한 경우, 매체를 기술중심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미디어 관련법으로는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굳이 언론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 및 논평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공식 기구를 통해 자격을 부여 받지 않고도 대안언론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과연 대안언론 역시 주류언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 하에서 대안언론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은 공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5. 이데올로기(Ideology)

Shoemaker & Reese(1996)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이데올로기와는 조금 다르다. Shoemaker & Reese 에게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신념체계와는 독립된 요인으로서, 앞서 다룬 네 가지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며 메시지가 생산되는 패턴이다(pp. 222~223). 이들이 다루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개인의 신념 체계이자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암묵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이데올로기보다 범위가 좁다. 이들이 다루는 이데올로기는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암묵적인 세계관으로서, 사회적 맥락에서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음은 분명하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이데올로기 이해는 MacIntyre의 내부적 선(internal good) 개념과 유사하다. 어떤 직능이든 그들은 내부적 선(internal good)을 공유하며, 선을 달성할 수 있는 덕목을 가진 개인의 탁월성을 높이 평가한다. 직능의 내부적 선은 사회적으로 직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당화 논거를 제공하며, 구성원들에게는 그들의 자존감과 직업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MacIntyre, 1997). 언론 조직 역시 여느 직능과 마찬가지로 내부적 선을 가지며, 조직의 운영과 그들이 사회적으로 확보하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García-Avilés, 2014). 이는 Shoemaker & Reese가 말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메시지의 패턴으로서, 메시지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으로서의 이데올로기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Shoemaker & Reese가 제시한 이데올로기 요인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바,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이 생산한 메시지가 왜 상이한지, 그리고

왜 상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분석 요인이 된다. 즉,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이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뉴스 보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언론 조직의 구성과 운영 역시 달라질 것이다.

Gans는 미국의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8개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중산층-중년-백인-남성-비즈니스-전문가의 질서 유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Gans, 2004). 이러한 인식은 앞서 저널리즘에도 강한 객관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Durham의 문제제기와도 맥을 같이한다(Durham, 1998). 주류언론은 현상유지를 지속하는 체제 유지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대안언론은 주변화된 사람들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이해관심사를 표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정치참여를 긍정한다(Fuchs, 2010; 박춘서, 2000). 따라서 대안언론은 체제 전복적인 보도, 이데올로기 작동에 반하는 보도를 지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류언론은 객관주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자리잡는다(Reese, 1990). 이들은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며, 가치가 개입하는 것을 지양한다. 따라서 설령 채널이 희소하다 할지라도 충돌하는 다수의 입장들을 모두 같은 분량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대안언론은 주류언론의 객관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이들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도함으로써 정파적인 속성을 띤다. 이는 일방적인 뉴스보도로 편향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게 되며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 중에 보다 우월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가치규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6. 소결

이 절에서는 이론적 수준에서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을 비교하여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해야 하는 사실은 언제나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을 이원 대립쌍으로 만들어 논의하였으나, 실재하는 언론 조직들은 각 속성을 상호배타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많은 부분에서 이 둘은 겹칠 수 있으며 혹은 제시한 속성들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대안언론의 사례로 꼽히며 한국의 발명품으로 회자되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시민저널리스트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광고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주류언론의 속성도 일부 갖는다. 즉, 우리는 위와 같은 구분이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해 낸 이념형이라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온전한 주류언론, 온전한 대안언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둘 사이의 경계는 더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이 어떤 언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생산되는 환경의 이념형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최종적으로 생산해 낸 메시지가 왜 다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

3절 대안언론이 추구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대안언론을 정의하기 위해 저널리즘에 가해지는 비판의 흐름 전반을 훑어보았다. 이를 통해 대안언론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안언론은 새로운 기술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 속에서 미디어 권력의 비대칭성을 바로잡고자 한다. 정치 및 경제 권력이 양산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류언론이 권력 그리고 언론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언론은 주류언론이 공유하는 가치 담론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대안언론의 뉴스 보도는 사회 운동과 개혁에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언론 행위는 기존의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공정성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다(Atton, 2005; Fuchs, 2010; Rosenberry & St John, 2010; 강명구, 1994; 박춘서, 2006). 기존 저널리즘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논의한다면, 대안언론은 전혀 공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의도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대안언론의 공정성 담론에 대한 무시 또는 공정성 담론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안언론은 주류언론과는 다른 나름의 공정성 담론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 대안언론의 공정성

공정성은 어떤 언론 보도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판단과 결부된다. 공정성 논의를 선두하는 대표적인 언론사로 회자되는 BBC는 2007년에 <시소에서 수레바퀴로: 21세기의 불편부당성 보호(From Seesaw to Wagon Wheel: Safeguarding Impartiality in the 21st Century)>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공정성에 상응하는 개념인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을 부딪히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는 "시소"에서 나아가 "수레바퀴"와 같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BBC, 2007).

충돌하는 사회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이 공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場)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공정성이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드러내어 보임으로써 공적 논의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준칙이다. 이에 따라 이준웅(2005)은 한국사회의 언론 공정성 요구가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자신의 입장이 언론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 담론 공중의 불안이 언론 공정성을 요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공정성이란 공적 논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의제화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청이다. 따라서 이준웅의 논의에서 공정성이란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문제이며, 갈등적 사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왜곡됨 없이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사회적 논의에서 정당하게 다뤄지는 것이다(이준웅, 2005, 2013; 이준웅 & 김경모, 2008). 더 나아가 언론 공정성 요구는 자신의 입장이 정당하게 다뤄지지 못한 데 대한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침해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공정성 논의는 대안언론 역시 공유하는 바이다. 대안언론 역시 언론이 사회구성원들의 입장이 소외됨 없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안언론의 공정성 논의가 주류언론의 그것과 차별화 되는 지점은 과연 이러한 공정성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강명구의 논의가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강명구(1994)는 공정성을 정의하면서 보도의 이데올로기적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의 공정성 모델은 사실성, 윤리성,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세 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성이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강명구, 1994). 즉, 공정성이란 윤리적 취재방법을 사용하면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인식을 하는 것임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을 뜻한다(pp. 40~54). 올바른 인식이란 사회 전체의 맥락과 역사를 아우르는 인식이다.

이 때의 이데올로기는 앞서 Shoemaker & Reese의 이데올로기 개념과는

다르다. Shoemaker & Reese의 이데올로기가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세계관을 뜻했다면, 강명구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이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세계를 보는 틀을 뜻한다. 강명구에게 이데올로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공간적인 맥락을 따짐으로써 특정 사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안언론에게 적용되어야 할 두 가지 지침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사안의 본질, 특히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앞서 강한 객관주의와 동일하다. 주류언론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진리관에 기반하는 데 반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대안언론의 주장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안을 살펴본다는 것은 곧 권력을 가진 자들과 동일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진실로 객관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데올로기를 가장 철저히 고려했을 때에 확보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려가 제시하는 두 번째 지침은 실천적 태도다. 이데올로기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언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려라 함은 빼놓아져 있는 언론 권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앞서 대안언론을 이론화하면서 다른 대안언론의 실천성과 맥을 같이한다. 정동우와 황용석(2012)이 공정성을 중립성과 균형성, 정확성, 가치배제 등을 확보하는 객관주의의 차원과 당파성과 주창성, 실천성을 강조하는 탈객관주의의 두 개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을 때에, 후자의 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의 지침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여부에 따라 언론의 공정성 이해는 상이한 형태를 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운영철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운영철(2004)은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을 구분하면서 이 둘이 서로 다른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드러낸다. 그리고 PD 저널리즘이 제작진의 도덕적 판단에 시청자가 호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스토리를 취사선택하고 편집하며, 이는 PD 저널리

즘이 좋은 저널리즘을 관용(tolerance)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창(advocacy)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윤영철, 2004). 윤영철의 이와 같은 분석은 공정성 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긴장관계를 파악하고 저널리즘의 두 가지 형태,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

해당 연구에서 윤영철은 공영방송 시스템 내 존재하는 두 형태의 저널리스트로 긴장관계를 국한시킴으로써 이를 한국사회 언론환경 전반으로 확대시키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언론환경 전반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는 언론인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의 황금기로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언론인의 자율성이 지켜졌던 시기이기 때문이다(이규연, 2006).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고 언론파업이 줄을 지었다. 재정 상황도 악화되었다. 소위 "언론의 위기"는 대안언론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 위기는 언론과 권력의 유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윤영철이 확인했던 PD 저널리즘 중 일부는 더 이상 언론조직에 남아있지 못하고 언론 조직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한국사회에서 PD저널리즘은 탐사저널리즘의 모습으로 1987년 이후 전사회적으로 일어났던 방송 민주화에 대한 요구 속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등장했다(강형철, 2007; 육서영 & 윤석민, 2013). 그러나 언론 위상의 약화가 정권과의 유착을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언론조직 내에서 더 이상 PD 저널리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2000 초 꽃피우기 시작했던 탐사저널리즘이 정파성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광고주를 압박하는 탐사 보도에 대한 거부감이 등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규연, 2006). 언론의 재정상황 악화는 언론이 정치 및 자본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점차 언론 내에서 PD 저널리즘의 지위는 약화되었을 것이다. 주류언론이 PD 저널리즘을 부담스러워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쫓겨나거나 빠져 나왔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조직체인 대안언론을 만들었다. 한국의 언론 민주화 운동 역시 대안언론의 공

정성을 주류언론에 편입시키기 위한 갈등이며, 주류언론은 대안언론의 공정성 수용과 거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사회의 대안언론은 PD 저널리즘이 주류언론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탄생하며, 주류언론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공정성 중 PD 저널리즘을 추구하게 된다.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 요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차이로 인해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의 저널리즘 형태는 기자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차이는 언론의 공정을 논의하는데 있어 그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현재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은 공정성의 적용 범위 논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안언론의 이론화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안언론의 저널리즘 실천은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기존 언론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주류언론에 의해 팽배해 있는 관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안언론은 저널리스트가 특정 집단 특히 미디어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직접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공정성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안언론의 공정성 부정은 언론 보도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취한다(Atton, 2005). Atton은 "총체적 접근법"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는데, 이와 대조하여 주류언론의 공정성 역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언론이 공정성을 인식이 총체적 접근법을 취한다면, 주류언론의 공정성 인식은 "개체적 접근법(individualistic approach)"을 취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언론의 공정성은 개별 언론사를 공정성의 실천 범위로 삼는다. 개별 언론사들이 모든 시각을 아우르는 보도를 하게 되었을 때 전체 보도 생태계에서도 공정성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저널리스트는 개별 언론사의 언론보도가 공정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 때에 공정성의 적용 범위는 개별 언론사이다(individualistic approach). 반면 대안언론은 언론사가 정치적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주류언론이 주장하는 개체적 접근

근법은 애초에 달성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론 보도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들은 보도 생태계 전체를 조망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사회 집단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공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저널리스트가 전체 뉴스보도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목소리를 강하게 항변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가 된다. 이 때의 공정성 적용 범위는 언론 환경 전체이다(holistic approach).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사회에서 주류언론의 공정성과 대안언론의 공정성 비교

	주류언론	대안언론
진리관	자유주의 진리관	강한 객관주의
저널리즘 형태	기자 저널리즘	PD 저널리즘
공정성 적용 범위	개별적 접근법	총체적 접근법

2. 대안언론의 공정성 평가 기준

대안언론은 강한 객관주의의 태도에 입각하여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며, PD 저널리즘의 형태로 언론환경 전반을 고려한 언론 불균형의 해소를 추구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안언론의 공정성 논의가 곧바로 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대안언론은 기존언론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안언론은 기존 언론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등장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 대안언론의 본질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류 언론이 정치 및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까

답에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평가다. 주류언론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 속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의 대안 미디어가 등장하여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대안언론의 공정성 평가는 주류언론의 현 상황을 직시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안언론의 공정성 평가는 대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은 대중의 신뢰에 기반한다. 어떤 전문가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 지식을 대중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공인 안에서만 유지 가능하다(Freidson, 2001). 언론인의 전문성 역시 다른 전문 직업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와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언론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였음을 고려할 때에 대중의 관점에서 어떤 대안언론을 바라고 신뢰하는지,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통해 대안언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류언론과 달리 대부분의 대안언론은 조직구성원의 수가 작고 재정규모 역시 작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류언론은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자원을 동원하며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인력과 시간, 경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대안언론은 심지어 저널리즘 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 시민들의 참여도 지지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대안언론에게 주류언론과 같은 공정성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실현 불가능한 도덕적 명령은 무의미하다. 대안언론이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을 때에 대안언론이 정체화(identify)하고 있는 지향과 대중과의 관계, 현실 상황 안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언론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것의 공정성 원칙을 평가해보자. 대안언론의 공정성 원칙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또는 대안언론의 공정성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대안언론의 공정성은 저널리즘 원칙의 폐기가 아니라 그것의 보완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Atton & Hamilton, 2011; Dahlgren, 2013; Rosenberry & St John, 2010). 저널리즘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 지향은 결국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언론이든 "언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시작하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전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대안언론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 특히 "정보를 제공받는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라는 이상을 무시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대안언론의 당위성은 저널리즘을 대체하는 다른 가치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복원에 있다. 이들은 다만 주류언론의 공정성 이해를 비판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사회적 존재 의의를 발견해야 한다. 결국 대안언론이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 "공론장의 성숙"은 주류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옹호되고 있는 바이며 함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대안언론의 취재 내용에 대한 평가다. 아무리 민주주의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해도 모든 보도 내용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42년 타임사와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카 사의 재정지원으로 구성된 허친스 위원회는 1947년 언론자유위원회의 이름으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라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허친슨 보고서(Hutchins Report)>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권리를 넘어서는 진실을 말할 의무로 받아들인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를 초월하는 도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결코 국가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로서 증오나 의구심을 양산하는 무책임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대안언론의 보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된다. 대안언론의 보도는 공동체의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도된 정보에 대해 언론사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대안언론이든 최소한 보도 내용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을 갖춰야 한다.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며(accuracy), 그 결과 알게 된 것과 믿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sincerity)이 투명성이다(Phillips, Couldry, & Freedman, 2010). 투명성을 갖추었을 때에 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하여 사실과 루머, 믿을 수 있는 정보원과 불확실한 정보원, 분석과 추측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과 주장을 분리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투명성에 대한 강조는 대안언론을 비롯하여 1인 언론, 시민 언론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저널리즘이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안언론과 대중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대안언론은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의 민주성은 조직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배타성을 지양하고 그들이 보도 대상으로 하는 대중들과의 소통을 지향해야 한다. 대중과의 소통은 결코 언론과 특정 집단의 결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감시와 견제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뜻한다. 어떤 언론조직이든 그들이 주된 취재 대상 및 경제적 후원자와 동화되기 쉽다.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라고 외치는 단순한 천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정권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대안언론이 정권이 바뀌면 제 기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거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주류언론이 오히려 민주적일 수 있다. 결국 대중과의 관계에서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은 대안언론의 독립성을 대중에게 확인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안언론은 자문기구를 두거나 재정 운영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장에서 대안언론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대안언론의 공정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대안언론은 강한 객관주의의 태도로 PD 저널리즘을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언론 보도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대안언론이 사회 내에서 유지하려는 정체성과 대중성, 자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정보를 제공받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 복원을 위한 것, 보도 내용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것,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이 그것이다. 이로써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갖게 된 셈이다.

3장 연구 문제

대안언론의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가 부재한 것에 비해 실제 대안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누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안언론이 공정성으로부터 결백한 진공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들의 공정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MacIntyre의 개념을 빌리자면, 한국 언론 환경에서 언론 조직이 공유하는 내부적 선은 공정성일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덕목이 강조될 것이다. 또는 Shoemaker & Reese의 이데올로기 개념이 보여주는 것처럼 특정 언론조직이 운영되는 방향성과 최종적으로 산출된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류언론을 부정하면서 등장했고 이들이 생산하는 뉴스 보도를 비판하는 대안언론은 애초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목표가 다르며 따라서 상이한 조직 운영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공정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주류언론이 이해하는 방식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안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대안언론이 공정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주류언론의 것과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론적인 검토와 실제 언론 조직의 운영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것이다. 대안언론이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주류언론과는 다른 차이가 실재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다만 겉으로만 표방할 뿐인 빈 수레는 아닌지도 역시나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대안언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Shoemaker & Reese의 다섯 가지 위계 요인 모형을 빌려 수행한 대안언론의 이론화 작업은 언론이 조직을 운영하고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의 역학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동일한 틀거리가 실제 대안언론의 메시지 생

산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 대안언론의 조직 운영 및 뉴스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 다음 대안언론이 이해하는 공정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직의 이데올로기로서 공정성은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저널리스트 개개인과는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안언론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 대안언론의 조직 운영과 보도뉴스 생산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뉴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대안언론의 공정성 이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 관행과 조직 부처들 간의 상호작용, 최종적인 뉴스 보도는 특정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목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대안언론을 직접 참여관찰함으로써 대안언론이 이해하는 공정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대안언론 저널리스트들 개인의 공정성 이해가 다루어져야 한다. 저널리스트 개인의 공정성 인식은 최종적인 보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저널리스트의 가치나 신념으로 인해 언론 조직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널리스트 개인의 공정성 이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2 : 대안언론은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이러한 대안언론의 공정성 이해가 한국사회의 언론 공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안언론은 주류언론에 대한 비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대안언론의 공정성 이해는 주류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언론이 현재 한국사회의 언론에게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안언론의 공정성 이해가 노정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대안언론이 담지해야 할 저널리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 되

어야 할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결과 연구문제 4가 도출된다.

연구문제 3 : 대안언론은 한국사회의 언론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4 : 대안언론의 공정성 이해가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4장 연구 방법

앞서 제시한 네 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는 뉴스 타파를 참여관찰하고자 한다. 참여관찰은 다층적 차원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대안언론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을 파악하고 그것이 언론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또한 조절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역량으로 참여관찰만으로 앞선 연구문제를 모두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언론 구성원들을 상대로 심층인터뷰 역시 진행하고자 한다.

1절 연구 대상

참여관찰 및 인터뷰는 뉴스타파와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많은 대안언론이 그러한 것처럼, 뉴스타파도 스스로를 대안언론이라 칭하지는 않는다(Harcup,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앞서 Shoemaker & Reese의 위계 모형을 통해 제시한 대안언론의 특성들 중 상당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안언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들은 주류언론을 비판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중시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뉴스타파는 앞서 서론에 제시했듯 편향성으로 인해 이미 보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낳은 바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뉴스타파 역시 나꼼수와 유사한 맥락에서 뉴스타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해직 기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2012년 1월에 출범한 뉴스타파는 미디어공공성포럼으로부터 2013년부터 3년 연속 언론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케이블 시민방송 채널 RTV에 방송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를 2013년 5월 10일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사보도'로 정의하고, 2013년 6월 16일, 권고 조치를

내린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가 계기가 되었다. 나꼼수와 마찬가지로 뉴스타파 역시 대안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

뉴스타파의 탄생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면서 출발한다. 당시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들고 최시중을 방송통신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후 공영방송에 소위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조는 2008년 12월 26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2009년 7월 21일까지 총 세 차례의 파업을 진행한다.

뉴스타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제작단을 조직하면서 출발하였다. 당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KBS 출신의 박중석 기자와 부위원장이었던 춘천 MBC 출신의 박대용 기자 두 사람이 2011년 10월 경 기자들 간 논의 속에서 구상하게 되었고, 이후 노종면 기자, 이근행 기자 등에게 기획을 제안하면서 뉴스타파 기획을 구체화 해 나갔다. 현재 언론환경에 필요한 저널리즘이 탐사보도라는 합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KBS 탐사보도팀장이었던 김용진 기자에게 조언을 부탁하여 뉴스타파의 큰 틀을 잡아나갔으며 4+1의 지도 체계를 마련한다.

뉴스타파를 논의했던 다섯 명의 기자들은 모두 공영방송 3사 출신의 해직, 또는 현직 방송기자였다. 당시 YouTube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성장하고 팟캐스트 형식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식의 언론을 구상하게 된다.

2012년 1월은 MBC, KBS, YTN 삼사의 언론파업이 이루어진 시기다. YTN 파업에서부터 시작된 언론 3사의 파업은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인한 여론독과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MBC, KBS, YTN의 해직 기자들이 모여 출발한 뉴스타파는 곧 다양한 주류언론에서 뜻을 같이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참여하여 2012년 1월 27일 첫 방송을 송출했다. 임시 프로젝트로 출발했고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언론개혁기금을 빌려,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이는 초기 뉴스타파

가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후 뉴스타파는 12년 7월 정기 후원자를 받기 시작하고, 그 직후 7 천 명의 후원자를 확보한다. 빌려 썼던 언론개혁기금을 모두 갚고도 작은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후 뉴스타파가 중요한 보도를 할 때마다 조금씩 후원자가 늘었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후원자가 대거 늘어났다. 2015년 12월 현재, 뉴스타파의 후원자는 3만 5천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성으로 출발했던 뉴스타파는 지금은 하나의 언론 조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파성과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오남용,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뉴스타파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5월 21일부터 보도하기 시작한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International Consortium for Investigative Journalism)와 공조하여 조세회피처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다. 이후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 보도 등을 보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뉴스타파는 특정 매체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텍스트 형태의 뉴스 보도와 동영상 뉴스를 모두 내보내고 있으며, YouTube 채널을 운영하고, 팟캐스트로도 다시보기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콘텐츠의 유통뿐만 아니라 이용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다양한 매체가 이용된다. 이들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다양한 채널로 후원자들과 소통한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뉴스타파가 연구대상으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뉴스타파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뉴스답지 않은 '가짜 뉴스'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언은 앞선 이론적 분석에서 다뤄진 대안언론이 가

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매우 유사하다. 둘째, 뉴스타파는 광고 없이 회원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대안언론이 경제적 독립을 강조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셋째, 뉴스타파는 주류언론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언론 환경에 대한 비판을 탄생 배경으로 한다. 이들의 비판의식은 주류언론 내부에서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언론사를 꾸리는 형태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앞서 다룬 대안언론의 정의에 부합한다. 넷째, 한국사회에서 대안언론으로 회자되는 주요 언론사인 오마이뉴스, 국민TV, 고발뉴스, 팩트TV 등에 비해 후원자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간접적이지만 뉴스타파가 한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언론으로서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의 성장으로 이들의 저널리즘 실천을 주목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Shin(2014)은 뉴스타파를 전통적인 저널리즘 가치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참여 저널리즘의 가치가 빛나는 충돌을 조절하고 협상해 나가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진실 추구가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적으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hin, 2014). 김재영은 뉴스타파 뉴스보도가 채택하고 있는 클라우드소싱 저널리즘에 주목하고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프로젝트가 진행된 과정을 기록하고 이들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진실추구의 가치를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김재영, 2014). 이들의 연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전문성이 요구 받는 변화의 긴장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공정성 연구와 일부 맥을 같이한다. 뉴스타파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맞아 저널리즘에 요구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절 연구 진행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4주의 기간 동안 뉴스타파에서 직접 참여관찰을 수행하고 그 이후 총 10명의 취재진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을 뉴스타파로 정하고 난 뒤 뉴스타파에 연락을 취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한 달 여의 참여관찰을 예상하고 있으며, 참여관찰 이후 기자 및 PD를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에서는 마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연구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하계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지원서에는 뉴스타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대략적인 연구 내용을 기술했다.

6월 29일부터 7월 24일 까지 이루어진 연구자는 10명의 학생들 중 한 명으로 뉴스타파 하계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총 4주에 걸쳐 이루어진 하계연수는 처음 2주간은 하루 두 명에서 세 명의 기자들이 돌아가며 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 기간 동안에는 연구참여자들과 라포를 쌓는 데 주력하면서(Crane & Angrosino, 1996) 동시에 뉴스타파의 대략적인 조직 운영을 파악했다. 각 프로그램은 정보공개청구, 기사작성, 데이터 시각화, 촬영과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거나 주제를 정해놓지 않은 자유로운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뉴스타파 구성원인 기자 및 PD뿐만 아니라 객원PD, 자문위원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후반부 2주 동안은 시간 제약 없이, 직접 이슈를 취재하고 보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취재원을 만나는 요령, 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 등의 문제를 두고 수시로 데스크을 거쳐야 했으며 또래 및 선배 기자와의 의사소통도 긴밀하게 요구되었다.

참여관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다른 기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들의 작업 환경 및 작업 과정, 의사소통 구조, 콘텐츠를 둘러싼 토론을 관찰했다. 매일 점심식사를 함께했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간

혹 크고 작은 술자리에서 뉴스타파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관찰 방식은 완전히 조직 시스템에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개입은 아니다. 중간 수준의 참여와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가 뉴스타파의 암묵지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육서영 & 윤석민, 2013).

뉴스타파 하계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타파측에 연구 기획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기획서에는 연구자의 이름과 성명 및 연락처, 지도교수, 연구 명,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예상 연구 기간, 예상 인터뷰 대상자의 수, 인터뷰 시 예상되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 달 동안의 참여관찰이 진행되는 동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필기하거나 노트에 관찰 내용을 기록하였다. 스마트폰이나 노트에 필기한 내용도 최대한 빨리 그 때의 기억을 되살려 노트북에 문서로 작성해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은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참여관찰이 종료된 이후, 9월 15일부터 총 열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덟 명의 기자와 두 명의 PD를 인터뷰하였으며, 열 명 모두에게서 개별 동의서를 받았다. 인터뷰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지도교수 명, 연구 명,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의 책임과 연구에 동의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명시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 동의서를 보여주고, 인터뷰 대상자의 권리와 연구자의 책임, 연구에 동의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한 다음 서명을 받았다. 그들의 이름을 포함하여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녹음은 사전 동의를 구한 뒤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연구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에서 제거하고 연구에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연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특정 사안을 지정하여 연구에 반영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요청한 사안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에서 제거하고 연구에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연구 대상자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았다. 기록물은 비밀번호로 잠금장치가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었으며, 연구자만 듣고 볼 수 있

도록 했다. 인터뷰 내용은 이후 연구자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인터뷰 및 연구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뉴스타파 회의실 또는 부근의 카페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대상자마다 한 차례씩, 한 시간에서 최장 두 시간 까지 진행되었다.

뉴스타파는 스무 명의 기자와 다섯 명의 PD가 취재 인력으로 역할한다. 본 연구가 일컫는 취재진이라 함은 이들 스물 다섯 명을 지칭한다. 뉴스타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뉴스타파 조직 내에는 경력의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크게 보았을 때에 뉴스타파 취재진은 공동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그러나 일부 이질적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주류언론에서 최소 10년의 경력을 가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시니어(Sr)" 집단과 기자 경력이 아예 없거나 기존의 대안언론이라 일컬어지는 언론사에서 3~5년 여의 경력을 가지고 입사한 "주니어(Jr)" 집단이 그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뉴스타파는 시니어 집단이 전체 취재진의 2/3 정도를 차지하며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 사이를 잇는 중간 허리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집단의 구분은 공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집단구분은 뉴스타파의 운영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표 3]은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다. 총 10명 중 네 명의 기자가 주니어라는 점에서 두 집단 간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뉴스타파에 속한 PD가 다섯 명임을 감안하면, 10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2명이 PD라는 사실도 인터뷰 집단이 대략적으로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함을 보여준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정리

이름	입사일	기자/PD	경력	Sr/Jr	이름	입사일	기자/PD	경력	Sr/Jr
A	2013년 2월	기자	2008	Jr	F	2013년 7월	기자	2001	Sr
B	2013년 2월	기자	2010	Jr	G	2015년 4월	기자	2003	Sr
C	2014년 10월	기자	2014	Jr	H	2014년 4월	기자	2002	Sr
D	2013년 2월	PD	2013	Jr	I	2015년 2월	기자	2005	Sr
E	2013년 2월	PD	2003	Sr	J	2012년 1월	기자	2001	Sr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이후 대안언론을 이론화한 [표 1]을 그대로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앞선 논의는 대안언론의 이론적 이념형을 찾는 것이었으므로, 주류언론과 대안언론의 특징에 얽매이지 않고 각 요인들에 해당하는 뉴스타파만의 속성들을 추출하고, 이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내용은 이렇게 작성된 뉴스타파의 다섯 가지 위계 요인 모형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연구 문제에 답하는 것이 될 것이다.

5장 연구 결과

뉴스타파는 시즌 1과 2를 거쳐 시즌 3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시즌 3에 돌입하면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라는 이름 또한 갖게 되었다. 시즌 1과 2가 나뉜 것은 일부 언론인들이 본래의 언론사로 복귀하게 되면서,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언론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면서 일종의 단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27일 10.26. 재보궐선거 투표소 변경의혹을 다룬 보도로 뉴스타파를 알렸던 시즌 1은 2012년 6월 22일,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대량 징계와 최승호 PD의 해직을 다루었던 <MBC 홀로코스트>로 마무리된다. 2012년 7월 후원 시스템을 도입하며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시즌 2는 2012년 8월 18일 노조 집회에 대한 무력 진압을 다룬 <노조 박멸 3단계 대작전>을 보도했다. 시즌 2는 2012년 대선이 마무리되었던 2012년 말 까지 이어졌다. 대선 직후 후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시 회원과 정기 회원을 포함하여 3만 명 이상의 후원자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 가능한 언론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시즌 3를 정비한다.

2013년을 3월 1일을 기점으로 시즌 3로 개편되면서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안정화하였다. 시즌 3부터 KBS 탐사보도팀을 이끌었던 김용진 기자가 대표를, MBC PD수첩에서 4대강 건설 문제를 보도하다 해고당한 최승호 PD가 앵커를 맡았다. 현재 매 주 목요일에는 뉴스타파 내부에서 소위 "본방송"이라 불리는 <최승호 PD와 함께사는 뉴스타파>가 방송된다. 본방송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꼭지를 가지며, 총 40여 분 분량으로 최승호 PD가 앵커로서 진행을 맡는다.

이후 뉴스타파의 조직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조직 개편이 매우 잦아 조직 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이 힘들다. 현재 이들은 스무 명의 기자와 다섯 명의 PD로 구성된 작은 언론 조직이다. 취재팀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에는 팀장이 존재하여 기자들의 일정을 취재 내용

을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촬영팀과 편집팀은 현재 다섯 명의 촬영 기자와 다섯 명의 편집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시각화하는 리서치팀이 존재하는데, 세 명의 인력이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장인 권혜진 박사가 함께하고 있다. 조직의 구분은 이루어져 있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직 틀보다도 참여 가능한 사람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형태로, 과업 중심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발 인력 두 명과 뉴스타파의 경영을 관리하는 다섯 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스타파에는 비정규직이 없고, 다만 몇몇 독립PD들이 뉴스타파를 전승 플랫폼으로 하여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목격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송출하고 있다.

뉴스타파 시즌 3는 2013년 3월 1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와 공조 취재하여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이라는 프로젝트 시리즈를 10 차례 송출했다. 이 중 6월 2일 송출된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4>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블루아도니스에 대해 보도했고, 6월 3일에는 해당 이슈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써 조세피난처 이슈는 모든 언론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당시 한국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았다.

2015년 12월 10일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110,055명, 누적 조회수 31,048,297회를 보이고 있다. [표 4]는 소위 대안언론으로 거론되곤 하는 언론사들과 주류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다. 각 언론사들마다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언론사들의 속성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안언론들의 방송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하여 공유되고 있으며, 유튜브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동영상 플랫폼임을 감안할 때에, 온라인 공간에서 각 언론사의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4]을 통해 팩트TV나 국민TV, 오마이뉴스TV, 고발뉴스 등의 유튜브 채널에 비해 뉴스타파의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나머지 언론사들이 대개 5만에서 6만 정도의 고정 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뉴스타파는 11만 명이 넘는 고정독자를 가지고 있다. 채널A Home 이나 jtbc뉴스 정도가 뉴스타파에 근사하는 고정 독자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뉴스타파의 고정 구독자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누적 조회 건수를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뉴스타파의 누적 조회 건수는 주류언론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는 업로드 영상의 수와 채널 가입일이 유사한 jtbc 뉴스와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뉴스타파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정도는 주류언론사의 그것에 비해 훨씬 작다. 이는 뉴스타파가 후원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재원 마련 방식을 갖고 따라 고정 구독자들 층을 다수 확보하고 있지만 고정 구독자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열심히 시청하는 충성도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언론사별 유튜브 뉴스 채널 기초정보 비교 (2015년 12월 10일 기준)

채널 명	고정 구독자 수(명)	누적 조회수 건수(회)	채널 가입 일	업로드 영상 수(개)
뉴스타파	110,055	31,048,297	2012.01.05.	1,729
팩트TV	48,610	17,508,261	2013.01.14.	5,286
국민TV 뉴스K	30,137	8,400,750	2014.01.28.	4,436
오마이뉴스TV	65,982	37,585,666	2011.04.02.	2,423
고발뉴스	30,788	8,828,015	2012.06.29.	520
KBS 뉴스	54,979	50,677,849	2013.08.06.	11,905
MBC 뉴스	50,323	59,037,859	2006.11.05.	13,277
SBS 뉴스	6,542	7,928,253	2014.05.02.	4,851
YTN 뉴스	62,482	153,773,670	2013.05.23.	100,109
채널A Home	104,464	161,469,192	2012.05.17.	7,515
TV조선 뉴스	28,780	74,605,868	2012.08.23.	8,269
MBN	34,993	54,354,532	2006.03.04.	7,928
Jtbc 뉴스	100,785	87,273,939	2012.02.29	2,259

이외에도 2015년 12월 10일 현재, 뉴스타파는 트위터 팔로워 283,818 명, 카카오토리 구독자 123,936 명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제작해 온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5]는 2015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수집한 자료로, 뉴스타파가 이제까지 유튜브에 업로드한 보도 영상들 중에서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보인 콘텐츠를 조회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꼽는 그들의 보도인 조세 피난처,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여론조작사건보다도 세월호 참사 보도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총 57개의 콘텐츠 중 상위권에는 세월호 참사 보도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특히 눈 여겨 볼 것은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보도인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가 사실상 사건 직후의 진도군 실내 체육관과 팽목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영상이었다는 점이다. 7분이 채 되지 않는 현장 중개 영상을 가장 많이 봤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려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후로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보도들이 계속된다. 특히 도드라지는 것은 KBS 기자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편집으로 보도된 <"제가 가족이어도..." KBS 기자의 눈물>이다. 역시 채 7분이 되지 않는 이 동영상은 세월호 보도 당시 현장을 취재하러 내려갔던 KBS 기자의 자책과 울분이 담겨있다. 기자들은 데스크에 의해 강제로 편집된 그들의 보도와 공영방송 KBS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이 소위 '기레기'인 이유를 찾는다. 뉴스타파가 언론노조 KBS 본부의 길환영 사장 퇴진 촉구 조합원 총회를 보도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타성에 젖어있던 주류언론의 무기력함과 정권 종속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의 보도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던 콘텐츠의 다수가 세월호 관련 보도라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의제가 온통 세월호 참사에 쏠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류언론이 환경감시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제외하고 나면 뉴스타파 시즌 1의 보도들이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콘텐츠를 업로드한 시간이 오래 된 까닭도 있겠지만, 언론 투쟁과 이명박 정권 말의 사회적 불만이 컸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 뉴스타파 유튜브 조회수 10만 이상 보도 정리(2015년 12월 10일 기준)

번호	업로드일	제목	조회수(회)	내용
1	2014.04.17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불신 자초	1,100,045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군 실내 체육관 및 팽목항 현장 취재
2	2014.04.29.	"구명조끼 내 꺼 입어"...누가 이 아이들을	922,626	세월호 희생자 박수현군이 촬영한 영상 공개
3	2014.04.28.	"이 나라에 세금 내며 살고 싶지 않다"	745,772	세월호 참사 특보, 세월호 희생자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 인터뷰, 박수현 군이 촬영한 영상 공개
4	2012.03.02.	강정특집 1 탄	411,384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 권력의 무력 개입,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
5	2014.04.17.	또 침몰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352,875	재난관리시스템 검토, 청해진 해운의 취약한 안전점검, 보수 언론사의 반발로 방송법 개정 중단
6	2012.01.27.	1 회	352,168	10.26. 서울시장선거 선관위 DDos 공격과 투표소 변경, 이명박 정권 임기 말 14 조 무기도입 추진, 정연주 전 KBS 사장 인터뷰
7	2014.05.14.	"제가 가족이어도..." KBS 기자의 눈물	326,777	세월호 참사 특보, 세월호 참사를 취재했던 KBS 기자의 참담함, 언론노조 KBS 본부의 길환영 사장 퇴진 촉구 조합원 총회
8	2013.03.16.	민간인 불법사찰 1 탄	316,456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개, 제주 강정 해군기지 입지 악조건 속에서도 건설 강행, 종합편성채널의 실제 시청률 순위
9	2012.03.09.	강정특집 2 탄	266,852	제주 강정 구럼비 발파, 강정 군항 입지 결함 평가 내부자료 유출
10	2015.08.07.	설파 - 쇼미더 힙합	257,327	TV 힙합 경연대회의 약자 멸시와 '힙합씬'의 반여성주의적 문화와 현 세대 비판
11	2014.04.18.	계속되는 말 뒤집기... 무능한 정부, 커지는 분노	247,863	세월호 참사 특보, 정부 공식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오보, 현장 취재 기자의 울화통과 언론에 대한 불신.

12	2014.04.19.	민간잠수사는 들리리? "기본정보도 공유 안 돼"	230,757	세월호 참사 특보. 구조 인력 부풀리기, 실종자 구조 체계 미비
13	2013.11.01.	불통 대통령'박근혜	229,314	언론의 박근혜 정권 보도 비평, 박근혜 대통령 소통 부재
14	2012.02.10.	3 회	221,003	4 대강 보 주변 수심 26 미터 구덩이 발견,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 실패, 한미 FTA 개성공단 제외 이유 단서
15	2015.01.06.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	207,205	9 년 간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분석
16	2014.07.24.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202,292	세월호 참사 100 일 특집 방송. 세월호 참사 직후 72 시간 동안의 정부 부재
17	2014.04.18.	뉴스타파, 세월호 침몰 상황보고서 입수... 발생일시 20 여 분 일러	184,834	세월호 참사 특보. 세월호 침몰 상황보고서 단독 입수, 사건 발생 일시가 오전 8 시 25 분으로, 해경의 기록과 23 분 이름
18	2012.04.08.	11 회	182,815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를 인권위 간부에게 전달, 쌍용자동차 노동문제, YTN 핵심 간부들의 불법사찰 협력 의혹
19	2013.08.15	뉴스타파 N 16 회 - 경찰 CCTV 는 말한다 외	182,369	국민검증단의 4 대강 사업 평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관련 CCTV 영상 분석 결과 댓글 활동을 삭제했음을 확인. 경찰의 관련 사실 은폐 및 축소.
20	2015.01.12.	박근혜 스타일...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182,573	박근혜 대통령 신년 연설 분석 - 경제 현황 과장, 과거 정책의 반복, 세월호 참사 당시 7 시간 기록 부재, 인사 실패
21	2013.11.15.	"유럽순방보도, 100% 국내용"	172,687	현실과 다른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보도, 사이버사령부의 자국민 대상 심리전, 비영리 탐사매체 ICIJ 소개
22	2015.10.15.	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	167,913	박근혜의 국정 교과서 추진 배경
23	2012.02.25	S1 5 회	160,869	4 대강 민간점검단 44 명 검토, KBS MBC YTN 3 사의 동시파업 입박

24	2013.11.26.	특별기획 MB의 유산 - 1부 4대강, 단군 이래 최대 '돈잔치'	160,974	이명박 전 정권 평가, 4대강 공사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 특혜 의혹, 총선 및 대선 앞두고 4대강 보고서 제작
25	2012.04.27.	13회 소가 웃는다	158,189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주도 인사 미국 광우병 소 발견에 입장 변경, 천성산 터널 공사 이후 환경 변화
26	2012.11.09.	묻지마, 보지마, 말하지마	157,477	MBC 김재철 해임 부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인사 개입 정황과 취재 무력 방해, 대선 한 달 전까지 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 부재에 대한 비판
27	2015.11.14.	경찰 물대포 맞아 후송된 백모씨	157,528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 제1회 민중총궐기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물대포 발사 영상.
28	2014.05.02.	공영방송도 침몰했다	154,662	세월호 언론 보도 비평,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담당 검사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
29	2015.04.16.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	154,347	부실한 세월호 수색의 전말, 세월호 인양이 의도적으로 늦춰졌다는 구체적 전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좌초 위기
30	2015.08.06.	해방 70년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 : 1부 친일 후손 1177	149,471	친일파 후손들의 학력과 직업, 거주형태, 주소지 파악. 친일파 후손들이 선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31	2012.09.15.	그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148,723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의 역사의식과 인혁당사건, 1989년 당시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인터뷰 동영상
32	2012.12.19.	굿바이 MB	141,129	쌍용자동차 철탑 고공농성,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소리통 유세,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권 사각지대
33	2013.09.17.	"부동산 게임 끝났다"	139,288	한국 부동산 시장은 문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34	2013.03.20.	전병욱	136,941	전병욱 목사 성주행, 청년세대 주택문제, 정치검찰과 정치검사의 승진

35	2012.02.04.	2 회	135,814	선관위 투표소 변경 문제, KBS MBC YTN 의 낙하산 사장 문제, 해직된 재능 학습지 교사 인터뷰, 한미 FTA 재협상 문제,
36	2012.05.12.	사장님은 나빠요	131,651	삼성 반도체공장 산업재해 노동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이정희 전 국회의원 인터뷰
37	2014.06.26.	세월호 레이더 영상 공개 ... 급변침 이유는 잠수함 또는 스텔스 군함?	129,667	세월호 레이더 영상 공개와 세월호 사고 원인 공방
38	2012.12.15.	이명박 5 년, 행복하십니까?	126,917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공약 검증
39	2014.07.29.	대통령의 위험한 숨바꼭질	127,549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 시간 기록 부재, 국정원 합신센터 개명,사드 배치 검토
40	2015.03.25.	침몰 5 년, 다시 천안함을 말하는 이유	125,491	천안함 침몰 증거 1 번 어뢰 검증 의혹, 엉터리 근거로 어뢰 공격 단정, 천안함 충돌의 원인
41	2014.07.29.	4 월 16 일, 대통령 7 시간 실종 미스터리	124,380	대책본부 방문 전까지 약 7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실종
42	2014.04.24.	세월호 참사, MB 때 잉태 ... 박근혜 정부서 터졌다	121,922	이명박 정권의 선령 규제 완화, 노후선박 안전점검 미비, 안전행정부 표류.
43	2014.04.21.	침몰 당일 수중 구조대 고작 16 명 투입	120,661	세월호 부실 초기대응,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상황보고서
44	2014.04.21.	드러나는 진실...'수색도 배도 총체적 부실'	120,604	세월호 침몰 당시 수중 구조대 9%만 투입, 세월호 전 항해사의 고백
45	2014.12.19.	경찰의 팔은 누가 "뺨뺨" a	116,185	경찰의 일반 국민에 대한 공권력 남용
46	2012.05.04.	14 회 장관님은 줄행랑	114,917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 대미 검역 주권 부재
47	2012.12.01.	여론 흐리는 여론조사	113,739	뉴스타파가 직접 안철수 지지자들의 생각을 여론조사

48	2013.05.21.	뉴스타파 ICIJ 공동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1	108,077	조세피난처. 한국인 245 명 확인
49	2013.09.17.	"빛내 줄게 새집 사라"	105,526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퇴 압박, 부동산 정책 비평
50	2015.09.16.	김무성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광고	102,588	김무성 부친 김용주의 친일행적 사료
51	2013.03.13.	4 대강 수심 6m 의 비밀 2	101,567	PD 수첩 '4 대강 수심 6m' 편 불방 조치와 방송 후 징계, 다시 찾아 나선 4 대강 수심 6m 의 비밀, 누가 지시했는가
52	2014.05.01.	김진혁 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기다리래	101,030	세월호 초기대응 실패, 무책임한 승무원들과 무능한 정부
53	2012.11.16.	금오산의 전설	100,987	박근혜 후보와 MBC 파업 간 관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일 기념 '박정희 탄신제' 현장, 이명박 정부 경제성과 부풀리기 의혹,
54	2014.06.20.	구청장과 기업인의 '빛나간 당선 파티'	100,305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당선자의 제주도 원정 골프와 부절절한 술자리
55	2014.04.04.	호외편 "투표근육 강화를 위한 족집게 버전"	100,270	뉴스타파 1~10 회 하이라이트
56	2012.11.18.	박정희는 神입니다	100,550	박정희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박정희 탄신제' 현장
57	2015.02.05.	MB 의 외침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100,024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검토 - 4 대강, 광우병 사태, 경제성과 수치 짜깁기, 자원외교 실패

[표 6]은 뉴스타파 내부에서는 “본방송”이라고 불리는 <최승호 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이슈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5]와 마찬가지로 12월 10일 관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4분기의 일부 보도들이 빠져 있다. <최승호 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는 시즌 3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시즌 1과 시즌 2는 앵커가 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기자가 보도의 내용을 진행하는 <뉴스타파 N>의 보도 내용을 정리했다. 일반적으로 세 개 정도의 짧은 보도가 하나로 묶여 30 여 분 길이의 동영상을 이룬다. 스트레이트 형식의 보도만 관찰 대상으로 했으며, 대담이나 인터뷰, 평론 등은 제외했다. 언론사의 얼굴인 앵커가 보도 내용 전반을 총괄하는 간판 프로그램이다. 스트레이트 보도 하나가 15분 이상일 경우, 2 개의 보도를 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30 분 이상일 경우에는 3 개의 보도로 간주했다.

보도는 이슈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모두 확인하고, 뉴스타파가 해당 이슈를 다루었던 가장 핵심적인 관점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4대강 보도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고발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환경 파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연구자는 뉴스타파가 4대강 이슈를 보도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공직감시로, 민간인 불법사찰은 인권의 문제로 보았다. 각각의 이슈를 상위 범주로 정리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 [첨부 6]에서 다루었다.

보도된 내용은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보도 년도와 분기를 구분하였다. 각각은 “경제, 부동산, 재벌”, “공직감시, 의회, 정당”. “과거사”, “교육, 문화, 미디어, IT”, “사법정의, 인권”, “안전, 의료, 복지, 노동, 환경”, “외교, 안보, 국제”, “해외탐사저널리즘”의 총 8개 범주로 묶었다. 이 중 과거사와 해외탐사저널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범주는 현재 뉴스타파에서 기자들의 보도 전문 영역을 분배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연구자의 참여관찰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도입되었다. 6개의 범주는 따라서 뉴스타파가 스스로 자신들의 보도 내용을 범주화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두 개의 이슈인 과거사와 해외탐사저널리즘은 뉴스타파가 보도된 내용 중 6개의 범주가 아우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두 개 영역을 따로 범주화한 것이다. 과거사의 경우에는 과거의 친일 독재정권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나 또는 과거 군부 정권을 찬양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보도 등이다. 시

민단체의 경우,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는 한 공직감시와 다른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경우, 공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공직감시, 의회, 정당”에서 다루었다. 해외 탐사저널리즘은 뉴스타파의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로 해외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과거사 이슈와 해외탐사보도의 경우는 보도 수가 많지 않고 하위 범주가 없어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분야는 “공직감시, 의회, 정당” 관련 이슈들로, 전체 763 개 이슈 중 292개가 해당했다. 특히 2014년에는 326개 보도 중 170개의 이슈가 “공직감시, 의회, 정당” 관련 이슈들로 다른 해에 비해 보도량이 많았다. 이는 [첨부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4년에 이루어졌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보도와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보도의 영향이 가장 컸다.

[첨부 2]가 보여주는 2012년의 보도 특징 중 하나는 12.19. 대선 관련 보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4년 2분기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뉴스타파 역시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라는 주요 정치국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정부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 인선에 대한 비평 역시 뉴스타파의 보도가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이다. 뉴스타파는 특히 선거 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계량적 정보 또는 과거 경력을 밝히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보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영역을 넘어서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보를 제공받는 민주주의(informed democracy)”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12년은 뉴스타파가 출발한 직후, 아직 한국탐사보도센터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기 이전 시기이다. 당시 보도들을 살펴보면 “사법정의, 인권” 분야와 “교육, 문화, 미디어, IT” 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정의, 인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이슈가, “교육, 문화, 미디어, IT”에서는 언론비평이 자주 보도된 결과이다. 특히 언론비평 보도가 뉴스타파 등장 직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보도되었다는 사실은, 탄생 직후의 뉴스타파는

주류언론을 비판하는 색채가 더욱 뚜렷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도 언론비평은 비율의 증감은 있으나 꾸준히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교육, 문화, 미디어, IT” 분야에서는 한국의 교육 정책에 관한 보도들이 포함되었다. 해당 분야에서는 언론비평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사 교육과 관련된 보도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뉴스타파의 취재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국정 교과서 이슈까지 꾸준히 다루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 부동산, 재벌” 이슈의 경우, 2013년에 이루어진 조세피난처 보도로 인해 보도량이 급증한다. 이후 2014년에도 조세피난처 관련 보도들은 지속적인 후속 보도들이 이루어졌으며,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와 유통재벌에 대해 지적했다.

“안전, 의료, 복지, 노동, 환경” 분야의 보도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지점은 원전에 대한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보도이다. 뉴스타파는 2014년, <원전 묵시록>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원전 정책과 세계적인 추세를 비교하는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노동 이슈의 경우, [첨부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제, 부동산, 재벌”에서 다뤄지는 재벌 관련 보도들보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 관련 이슈들이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또한 이슈 피로도가 높음을 고려했을 때, 노동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는 언론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수 있다. 이는 뉴스타파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고 보도하는 데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뉴스타파 메인 보도 내용

	2012 1Q	2Q	3Q	4Q	합계	2013 1Q	2Q	3Q	4Q	합계	2014 1Q	2Q	3Q	4Q	합계	2015 1Q	2Q	3Q	4Q	합계	총합계
경제, 부동산, 재벌	1		4		5	2	27	3	7	39	14	5	3	19	41	10	12	5	4	31	116
공직감시, 의회, 정당	5	2	1	18	26	13	11	2	18	44	42	69	35	24	170	28	12	6	6	52	292
과거사			5	1	6				4	4				0				2		2	12
교육, 문화, 미디어, IT	9	6	6	10	31	2	5		13	20	4	12	12	16	44	6	2	4	11	23	118
사법정의, 인권		10	2	1	13				9	9	2	2	4	1	9	3	3	4		10	41
안전, 의료, 복지, 노동, 환경	5	17	11	2	35	2	4	6	17	29	13	3	16	24	56	11	4	7	7	29	149
외교, 안보, 국제	1				1	3	2	1	5	11	1		1	2	4	4	4		1	9	25
해외탐사저널리즘					0				8	8			1	1	2					0	10
총합계	21	35	29	32	117	22	49	12	81	164	76	91	72	87	326	62	37	28	29	156	763

1절 뉴스타파의 기자 개인(Individual)

뉴스타파 구성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언론계에서 10년 이상의 관록을 쌓은 경력직 기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기자로서의 경력은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경로다. 언론인 실무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환경에서 기자를 길러내는 것은 현장 경험뿐이라는 것이 언론사에서 공유되는 일반적 생각이다. 신입 기자가 담당 관할구역의 경찰서를 돌면서 기삿거리를 획득하는 소위 '사스마와리'가 기자 생활의 초입이 되는 이유 역시 기자로서의 현장 경험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함이다.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인정되는 공인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자의 전문성은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 및 보도하는 경험을 누적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

뉴스타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KBS와 MBC 등에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기자로 생활해 왔던, 기자로서의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들은 KBS 탐사보도팀, MBC PD수첩과 같은 한국 언론사에 획을 그은 굵직한 집단에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이들의 전문성에는 이전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인 언론사에서는 대개 기자 10년 경력이면 단순 평기자가 아니라 데스크를 담당한다는 사실과 단순비교했을 때에도 확인 가능하다.

흥미롭게도 뉴스타파를 구상하던 첫 단계에서는 훈련된 기자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길 외에 다른 길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뉴스타파를 구상해 나가던 2011년 말은 나꼼수가 팟캐스트를 통해 사실과 가설을 넘나드는 유머와 풍자로 인기를 얻고 있던 때였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논의 속에서도 나꼼수와 같은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오갔다. 실제로 한 기자는 당시 뉴스타파 구성원이 자신을 뉴스타파 기획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꼼수 영상버전이라고 생각하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탐사보도를 비롯한 정통 저널리즘을 추구하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이러한 기조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들이 정통저널리즘을 택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을 하자"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통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이후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다시 한 번 다뤄질 것이다.

기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개인이 체득한 자산으로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언론사를 떠나 뉴스타파에 정착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은 이전 언론사에서 훈련 받았던 뉴스를 보는 관점이나 배경지식, 취재기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뉴스타파에서도 적극 활용한다. 따라서 뉴스타파 기자들의 전문성은 이들의 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E : 해방 70주년인데, 김용진 대표가 워낙 옛날부터 일제 훈장 관련해서는 KBS에 있을 때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 했었다. 그래서, 85년에도 KBS에서 20년 전에 제작을 했었고, 해방 50년에도 했었고, 해방 60년에도 했었고.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70년 됐으면, 친일파의 후손 봐야 된다.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 이게 김용진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라는 것들을 실무 제작하는 다른 기자들이 똑딱똑딱해서 한 거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뉴스타파 구성원들 간에는 전문성의 간극이 존재한다. 주류언론사에서 10년 여의 기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집단과는 달리, 아직 기자로서의 경력을 충분히 쌓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주니어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3~5년 정도의 상대적으로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인터뷰이 C나 D 처럼 뉴스타파에서의 기자 경험이 처음인 사례도 있다.

전문성의 간극은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니어 기자의 보도는 따라서 시니어 집단의 판단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시니어 기자에 비해 더 까다로운 데스크를 통과해야 하거나 또는 선배에게 배우는 후배의 입장에서, 시니어 기자들을 돕는 형태의 보도를 하게 된다. 뉴스타파의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의 간극에 대해서는 뒤의 뉴스타파의 조직 차원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또 한 가지 다뤄져야 할 뉴스타파 취재진 개개인의 특성은 주류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이다. 시니어와 주니어를 막론하고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의식을 공유한다. 시니어 기자들 중에는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언론사가 정치 및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언론 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경험을 갖고 있다. KBS에서 기자생활을 했었던 기자 F와 I는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경우다. 이들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며 저항해도 결국은 변화하지 않더라하는 반복되는 패배감에 무기력했음을 밝혔다.

F : 청와대가 (KBS 사장을) 임명 하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게 요번에 나왔지 않나. 세월호 참사 때 (김시곤 전 KBS 보도국) 국장이 얘기 했지 않은가. 청와대에서 전화 온다고. 사장이라고 청와대 전화를 안 받겠는가? 자기가 임명해 줬는데. ... 청와대에서 사장을 임명한 다음에는 그 밑에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눠먹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인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을 데스크, 임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앉히는 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각할 만큼.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100% 순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 조금 들어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는 거다. ... 몇 년 동안 인사 장난이 반복되다 보면, 조직 전체가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좋은 자리에 앉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패배의식이 강해지고 일을 안 하게 된다. 해 봐야 뭘 하겠는가.

I : 외압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제도적으로는 KBS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어야 하지만, 그건 바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외압에 맞서는 내압을 높이는 것이다. 그 내압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국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을 때에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기자들 반발 때문에 못 버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내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했던 거다. ... 내압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논의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은 정권에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될 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이었다.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해 시작된 언론 종속이 실제 의도했던 혜택보다는 오히려 종속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 종속적 상황에서 기자들은 기사 자체보다 언론사 간부들의 눈치를 보는 데에 관심과 시간을 쏟게 되었다. 당시 취재진들이 겪어야 했던 소모감 역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론사, 뉴스타파를 찾도록 했다.

H : 보도국하고 경영진 쪽이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정부쪽 눈치를 보더라. ...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나와 내 동료들이 생각하기에는 ... 비판 견제 기능을 하는 언론사로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비판 기사를 생산 해 내고,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간급 이상의 간부진들이나 경영진들은 자꾸 눈치를 보더라. 대주주 포함해서. ... 그런 식의 정권 눈치를 좀 보면서... 정책적인 차별을 극복을 해 내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것도 아니고. ...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취재하고 보도하느라고 고민하는 것만큼, 회사하고 싸우거나 우리 회사의 보도국 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도 시간을 거의 비등비등하게 썼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패배감이 다른 주류언론사로의 이직이 아니라 대안언론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다른 주류언론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시 주요 언론사들의 동시 파업이 진행되었었고, 파업이 별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어느 언론사나 마찬가지였다. 빠른 정보통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타 언론사의 현황을 모를 리 없다. 두 번째로 주류언론의 위계서열 중 가장 꼭대기에 위치했던 이들이 다른 언론사에 입사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대안언론인 뉴스타파는 주류언론이 구성하고 있는 언론 위계에서 독립적인, 새로운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언론에서 뉴스타파로의 이동은 기자의 소신과 가치판단의 결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문제 있는 인사"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부담이나 혹은 이미 "문제 있는 인사"로 평가 받고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언론이 유착되어 있었던 것은 정치 권력만은 아니었다. 공영성을 띠는 KBS나 MBC는 자본 권력에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지만, 신문사와 같은 광고주와의 관계가 중요한 언론사의 경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과의 유착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자본권력에 대한 종속은 기사와 광고를 거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G : 자본과의 관계가 문제다. 기업. 대기업. 재벌들.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 쓰더라도 애초에 기획 의도나, 취재된 내용이 고스란히 나갈 수가 없고 왜곡이 되거나, 기사가 빠지거나, 광고와 바꿔치기 된다거나. 비밀비재하다.

광고주는 비단 기업이나 재벌의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학 역시도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이기도 했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한 주니어 기자는 자신이 뉴스타파로 오게 된 데에는 대학의 청탁성, 홍보성 기사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학의 비리를 취재해서 데스크 몰래 국장의 동의 없이 기사를 올렸더니 해당 대학의 천 오백 만 원 짜리 광고가 바로 해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사장이 해당 기자를 불러 "좋게 좋게 하자"는 설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광고 협상은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하거나 비판 기사를 언론 지면에서 삭제해버렸다.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는 뉴스타파를 찾게 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이처럼 뉴스타파의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양심을 침해하고, 전문성으로 다져진 소명의식을 훼손하는 언론 환경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식은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한다. 이미 언론사 내부에서 노조활동, 심층취재를 통한 근거 제시, 특종 발굴, 데스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기

사 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저항해 왔던 이들은 기자 본연의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전 언론사 밖으로 나오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정체성의 하나가 된다.

2절 뉴스타파의 미디어 관행(Media Routine)

언론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며 또한 신뢰를 얻고자 한다. 한시적인 프로젝트로 끝날 것이라 여겨졌던 뉴스타파가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자칫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많은 언론사들과 같은 운명을 견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굵직한 보도들을 해냈기 때문이었다. 조세피난처,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여론조작사건과 같은 보도들은 뉴스타파가 스스로를 소개하기 위해 언급하는 사례들일만큼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뉴스타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도 형식은 탐사보도다. 뉴스타파는 시즌 3부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CIJ,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뉴스타파의 구상이 시작되었던 2011년 말부터 초기 핵심 구성원들은 현재 한국 언론환경에 필요한 것은 탐사보도매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이러한 사실은 뉴스타파의 출범을 준비하기 전에 언론개혁실천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정보 중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개혁실천위원회에서 직접 기사를 작성할 수는 없으니, 다른 언론사의 보도라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이 때에 권혜진 박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권혜진 박사는 뉴스타파의 데이터팀장을 맡고 있다. 이후 뉴스타파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다섯 명의 초기 핵심 구성원이 공유했던 언론의 모습도 탐사보도였다. 이들에게 탐사보도는 저널리즘 그

자체와 다르지 않다.

J : 탐사보도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복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그 부분은 다섯 명 다 공유한 합의점이었다. 탐사보도를 해야지. ... 저널리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진실을 두고 타협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타파가 〈추적 60분〉, 〈PD 수첩〉 등과 유사한 형태의 탐사저널리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대안언론의 공정성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주류언론의 독립성 상실이 PD 저널리즘이 형태가 주류언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또한 대안언론이 탐사저널리즘의 취재방법론을 차용한다는 지적과(Atton & Hamilton, 2011)과도 일치한다.

이들은 탐사보도를 권력의 비효율이나 오작동, 오남용 등 권력이 은폐하여 자신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을 파헤쳐 폭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탐사보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들은 종종 Aucoin의 탐사보도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듯 언급했다(Aucoin, 2007). 실제로 김용진 대표는 탐사저널리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를 가장 잘 정의한 것은 아마도 Aucoin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H :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 은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폭로가 사실 나는 탐사저널리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아이템을 기본적으로 찾는 거다. ... 어떤 폭로가 전체 사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감춰져 있을 때에는 훨씬 문제가 커지는 그런 내용들을 찾는 거다. 분명히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저널리즘 그 자체가 곧 탐사보도여야 한다고 말한다. 탐사보도는 저널리즘의 하위 분야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궁극적인 지향이며, 바른 저널리즘을 실천한다는 것은 탐사보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용진 대표는 '탐사저널리즘은 차가운 얼음 정도의,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다'라고 말

한다. 따라서 탐사보도는 뉴스타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는 뉴스타파가 저널리즘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는 이후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G : 탐사보도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끝까지 하는 취재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취재를 하는 게 탐사보도라고 생각한다. 무슨 뭐 되게 멋있는 말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감추어 놓은 진실을 뭐 이런 미사여구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냥 기자인 내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취재를 해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탐사보도다.

저널리즘 그 자체로서 탐사보도를 추구한다는 점은 뉴스타파의 미디어 관행에 세 가지 특징을 낳는다.

가장 큰 특징은 취재 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루어졌던 특보와 같이 시의성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 빠르게 보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평균 두 달 정도의 취재 및 촬영 기간을 가진다. 장기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훨씬 오랫동안 준비하게 되는데, 해방 70주년을 맞아 제작되었던 <친일과 망각> 시리즈는 7개월 여를 취재하고 한 달 여를 촬영한 8개월 간 취재의 결과물이었다. 자연스럽게 데일리 뉴스를 하는 언론사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를 두고 뉴스타파는 '월간지와 같은 호흡으로 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특징은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 형식과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그들의 보도 내용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감추어진 것에 대해 폭로하는 것은 종종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직관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그 자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은 종종 하나부터 열 가지를 입증할 많은 근거들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일차적인 문제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소구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뉴스타파의 주된 이용자이고 후원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뉴스타파의 모토인 "99% 시민을 위한 방송"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99% 시민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바라고, 이용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A : 솔직히 뉴스타파도 자기가 불만한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런 심각한 사안의 뉴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내가 살기 힘든 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평소 스마트 폰으로 뭔가를 잘 보고, 사안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여지가 있는 중산층이 ... 실제 우리의 열혈 시청자들이 아닐까.

뉴스타파 역시 여느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차적인 통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타파의 보도가 어렵다는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 역시 이를 문제를 인지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보도인 <타파스>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타파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슈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더 쉬워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다.

두 번째 문제는 뉴스타파가 방송 매체라는 것과 연결된다. 탐사보도는 많은 양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뉴스타파가 펜기사가 아닌 방송기사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방송기사는 펜기사와 달리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다. 펜기사가 기자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세세한 내용을 전달하기 용이한 데 반해 방송기사는 시청각 자료가 요구된다. 그 결과 기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애니메이션을 동원하는 등 데이터와 사건 내용을 시각화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G : 월간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원고지 200매 이렇게 쓴다. ... 100매는 가볍게 쓰니까. 그런데 뉴스타파에서는 탐사보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방송 분량으로 20분에서 25분을 넘지 않는다. ... 이게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스무 장도 안 된다. 스무 장 서른 장 정도.

방송이 과연 탐사보도와 부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이들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답한다. 거의 대부분의 기자들이 방송 기자로서의 경력을 쌓아 왔고, 텍스트보다는 방송 매체가 여론 소구력이 높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며, 그것이 방송, 특히 방송 형태의 탐사보도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는 뉴스타파가 PD저널리즘의 속성의 면모를 띠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J : 우리는 영상의 힘을 너무 잘 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직접 보는 게 최고다. ... 텍스트로 보면, '현장은 전쟁터와 같았다'(라고 써야 하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화면 10초 보여주면 전쟁터인 거다. ... (기자가)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진실을 보고 나면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탐사보도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따라서 방송 이외의 매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방송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D : 어쨌든 텍스트보다는 더 전달력이 있고, 조금 더 가볍게 전달할 수 있다. 난 이 영상의 특성을 좀 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텍스트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 어색하지 않은 그림을 올려만 놓을 때가 꽤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영상을 먼저 구성을 하는, 영상 중심의 방향을 가지면 좀 더 전달력 있지 않을까. 페이스북에도 영

상을 올리는 거랑 텍스트를 올리는 거랑 조회수나 이런 반응 차이가 많이 난다. 영상이 훨씬 전달이 잘 된다.

C : 탐사보도는 ... 네러티브 저널리즘이랑 결합된다. 탐사보도는 길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들려면 이야기가 흘러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몰입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 여기에 어떤 네러티브를 담을 것인가의 문제는 그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감성 소구력이다.

I : 동영상에 갖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 앞으로는 텍스트도 많이 하려고 한다. 텍스트나 만화, 팟캐스트 이렇게 영역을 넓히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탐사보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에서 파생되는 세 번째 특징은 주변부 집단에 대한 관심보다는 권력감시가 뉴스타파 내부에서 더 중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사가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권력의 핵심부를 바라보는 것과 권력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다. 탐사보도의 본령 자체가 권력이 드러내기 꺼려하는 정보를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뉴스타파의 시야가 여의도와 청와대로 국한될 위험이 있다. 즉, 주변부 집단의 일상적 삶이 뉴스타파 내에서도 주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과 주변부 집단의 삶을 그려내는 것 중 뉴스타파는 어느 언론사의 생리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선호한다.

I : 1번(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네거티브한 보도다. 2번(주변부 집단의 삶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지티브한 보도다. ... 사실 언론이 항상 네거티브한 게 인기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 나도 개인적인 선호가 2번보다는 1번에 훨씬 더 맞춰져 있다.

A :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는 싶지만 뉴스타파가 또 탐사저널리즘 센터니까 약간 특종 지향적인 측면이 있다. 보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안이 아닐 것 같다 싶으면 아이템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 좀 열려있는,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목소리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데스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데스크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러나 과연 뉴스타파가 주변부 집단에 대해 충분히 보도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듯 하다. 독립 PD들이 생산한 방송 콘텐츠를 뉴스타파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목적자들>의 경우, 우리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 속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것과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양산된 피해자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가르는 것 또한 이분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둘 중 하나만 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둘이 뒤섞이지 않은 보도라는 것은 작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은 뉴스타파가 진실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진리관과 강한 객관주의의 진리관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기자의 일차적인 덕목을 사실확인에서 찾는다. 기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필요 시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구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자다. 따라서 가장 좋은 보도 중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11월 14일 집회를 다룬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의식불명>과 국정교과서 TF 팀이 있었던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 "청와대에 일일보고">에서 뉴스타파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였으며, 있는 그대로의 장면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후 본격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뉴스타파의 기본적인 방침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을 때에, 대중이 진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진실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J :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다른 방송사의) 방송은 잘라버리고 조금밖에 안 한다. 1분 이렇게만. 우리는 취재했던 거를 다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의 재료(Raw material)을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러다 보니 (보도가) 5분이 넘고 길다. 그런데 그 대신에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다. 역사를 기록하듯이 당시 찍은 그림. 현장.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와 함께 평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는 보도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날것으로서의 사실을 햇빛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진실을 담고 있는 정보는 취재원의 별 다른 조작을 가미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할 것이며 대중은 이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인간 이성의 작동을 믿는 자유주의의 진리 추구 방식과 동일하다. 또한 뉴스타파는 진실이 소외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갖고 있다. 이들은 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권력의 오남용 결과 양산된 피해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보다 고차원적인 가치로서의 진실은 오직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만 온전히 드러난다. 따라서 보도는 사안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의 맥락이란 사회적 약자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약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맥락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현장에 있었던 기자 개인이 오감으로 느낀 바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을 다녀 온 기자의 판단이 중요해진다.

C : 상황과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실체인 전체 과정 안에서, 힘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자원들이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B : 좋은 기사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정말 그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서 나온 기사가 좋을 때도 굉장히 많다. 세상에 그런 기사는 많다.

F : 이 철거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싸움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뉴스를 보고 모르는 거다. 그냥 당시에 싸움이 있었고, 오히려 그 뉴스만 보면 철거민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경찰 공권력을 위협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만 부각이 되는 거다. ... 실제로 보면 그 전에 전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벌여 왔고, 경찰이 어떤 식으로 폭력적인 진압을 했었는지, 전사들이 죽 있었던 건데, 전사를 무시하고 그 날 벌어진 한 장면만 딱 보여준 거다. ...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위험하구나.' 이렇게 끝인 거다.

이들의 생각은 권력의 작동을 보기 위해서는 권력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Sandra Harding의 입장 인식론과 매우 유사하다. 강한 객관주의가 자유주의 진리관을 비판하며 등장했으나 사실 확인을 통한 진리 추구를 포기한 것은 아닌 것처럼, 이들의 보도 역시 자유주의를 폐기하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맥락 안에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진실 그 자체에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주의 진리관과 강한 객관주의적 진리관의 혼재는 이들의 보도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태도가 이후에 뉴스타파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이어진다. 사회의 일부에 불과한 특정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보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를 다루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뉴스타파의 미디어 관행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은 매체 비평, 메타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주류언론을 비판하며 새로운 언론 조직을 만들어내는 대안언론의 태생적인 속성과도 같다. 취재진 개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한국사회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무엇을 보도할 것

인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제작된 뉴스타파의 <세월호 참사 1주기 특집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은 이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다른 언론사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의식이 깔려 있었다.

E : 세월호 1주기 <참혹한 세월, 국가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한 프로그램이다. 세월호에 대해서, 1주기라고 해서 유가족이 어디서 우는 모습만 가져다가 편집하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취재도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제(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세월호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거 취재 해보고 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다.

아예 대놓고 주류언론을 비판하기 위한 이슈를 선정하여 보도하기도 한다. DMZ목침사건 당시 KBS의 보도가 북한의 보도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었던 <전쟁 부추기는 남북언론, 이란성 쌍둥이>, 종편의 프로그램 내용이 기업으로부터 협찬 받은 광고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 <천기누설 '종편의 속살'>과 <광고가 된 뉴스, 영업원이 된 기자>, KBS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을 지적한 <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용?> 등 언론의 오작동을 지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뉴스타파의 매체비평적 속성은 이후 대외관계 부분에서 타 언론사와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다.

3절 뉴스타파의 조직(Organization)

소규모 조직인 뉴스타파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론사 공간 역시 최소한의 것들만 갖추고 있다.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구분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간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 편집실이 방음 처리 되지 않아 편집 영상과 소리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 때로 편집을 둘러싸고 기자 및 PD들 간 토론이 벌어지면 뉴스타파 공간 전체가 시끄럽다. 스튜디오 또한 언론사 가장 내부에 유리벽으로 구획된 조금 큰 방 정도의 느낌일 뿐이다. 심지어 뉴스타파가 가장 비중을 두고 제작하며, 소위 "본방송" 이라고 불리는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의 촬영도 개방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까닭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촬영하기 직전에 누군가가 "촬영합니다"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은 전화도 밖에서 받는, 인위적인 침묵이 유지된다.

공간 구성에서 조직의 위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에서부터 앵커, 경영실, 취재진 모두가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있다. 다만 공간배치 상에서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는 창가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조금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갖는데, 이는 암묵적인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직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실무 및 행정업무를 뉴미디어 업무를 담당한 구성원들, 그리고 일부 기자들 또한 유사한 공간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타파의 공간은 수평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로는 뉴스타파가 기자들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조직 체계를 바꾸는 실험적 조직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이다. 각각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직능을 막론하고 구성원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는 점조직 형태 또는 네트워크 형태일 것이다. 위계적, 수직적 관리 체계의 방해 없이 각 구성원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

서 서로 경쟁하고 또한 협력하는 조직을 상상할 수 있다. 복잡한 공문서 작성도 없고 인사문제 등으로 괴로워해야 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다른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만이 요구되며 그것이 최고의 선을 이루는 네트워크형 조직은 많은 전문가들에게는 꿈의 공간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취재진이 판단했을 때에 뉴스가치가 있는 사안을 발견하면, 공동체에 이를 공유하고 취재에 돌입한다. 극히 드문 사례를 제외한 대개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그대로 취재로 이어진다. 취재 내용은 데스크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편집 방침을 정하는 권위적 데스크라기 보다는 전문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위한 수평적 의견 교환이다. 취재진은 대표와 직접 상호작용한다. 취재에 필요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 역시 제도화된 행정절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유동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재원이 그리 풍부하지 않은 만큼 지나친 지출을 경계하는 정도다. 대부분 문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원과 인력을 운영한다. 시간과 돈의 한계 안에서, 구성원들은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격려된다. 작은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I : (이전에 속해 있었던 언론사가) 자원이 훨씬 많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 그 자원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훨씬 번거롭다. 우리는 조직이 작기 때문에, 뭐 촬영 가는 것도 금방 이야기해서 가자 이렇게 하고, CG를 만들어도 만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전 언론사에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문서로 작성해야 했다. 특히 ... 다른 본부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다.

H : 예를 들어, 아이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접근이 잘못된 거 같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럼없이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획이 더 풍부해지기도 한다. 취재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도 하고. 협업을 내부에서 굉장히 터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 기자들끼리 서로 경쟁

도 하면서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도움도 주려고 하고 협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잘 된다.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 형태가 순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뉴스타파는 분업이 최소화 되어 있다. 기자 활동을 보조해주는 하위 조직 없이, 한정적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양이 많고, 처리해야 하는 직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뉴스타파가 다루었던 대표적인 보도 중 하나인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보도 내용 중 중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 한 사람이 혼자 움직였다. 촬영 기자 혼자 중국으로 가서 직접 중국어를 구사하며 취재원을 만나 취재하고, 촬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화한 것이다. 물론 촬영 기자 혼자 움직인 것은 많지 않은 사례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자와 촬영기자 두 명이 움직이게 된다.

분업화가 덜 되어 있다 보니 기자 한 사람이 취재 의외에 것에서 직접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재 현장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야 하며, 해외 취재를 갈 때에도 본인이 직접 비행기에서부터 호텔까지 예약한다. 취재 보조원의 도움 없이 기자 혼자 (또는 취재진 둘이서) 정보를 수집한다.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흔히 전문성이 요구하는 영역 밖에서까지도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는 업무 과부하로 이어진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조직 시스템의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 형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네트워크형 조직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형 조직은 시니어 기자들에게 한하여 적용 되는 조직 형태이며, 주니어 기자들은 취재 아이템을 결정하거나 데스크를 통과하는 것, 재원을 활용하는 것 등에서 시니어 기자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A :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거는 ... 주니어 기자들은 사실 잘 모르겠다. 선배들이 아이템을 할 때에는 데이터 팀과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들 계속

요구하면서 피드백을 얻고 본인 리포트에도 넣고 하는데, 우리가(주니어 기자가) 우리 아이템 할 때 데이터팀에 가서 뭔가를 의뢰하지는 못한다. ... 그 분들은 이미 선배들이 의뢰한 거 때문에 바쁘다.

뉴스타파 조직에는 경력의 간극이 존재한다. 간극은 뉴스타파를 두 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주니어 집단은 시니어 집단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로부터 배우거나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취재 과정에 일부를 맡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독으로 취재, 보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 보도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인 것처럼 인식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니어 집단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주니어 기자들은 시니어 기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으며, 전문 기자로 활동할 것을 요구 받지만 동시에 아직은 기자로서의 완성도가 낮은 준전문가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뉴스타파가 완전히 수평적인,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암묵적인 간극과 위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것이 뉴스타파의 미디어 관행과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뉴스타파의 공정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 사이의 간극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가장 단적인 사례는 편집회의의 운영 양상이다. 관찰자가 뉴스타파를 관찰하는 기간 동안, 뉴스타파의 전반적인 운영은 월요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전체회의와 이후 편집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전체회의의 경우 뉴스타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며 여기에서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된다. 보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는 편집회의인데, 이 편집회의에서 뉴스타파가 무엇을 취재하고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취재진들은 자신이 다루기를 원하는 이슈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편집회의에서 공유한 후, 이 자리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접근 방법, 준비 중인 다른 이슈들과의 관계, 보도 시점, 취재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편집회의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이루어지는 바로 첫 단계이자 뉴스타파가 무엇을 어

떻게 다룰 것인가가 결정되는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편집회의가 시니어 기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주니어 기자가 취재하고자 하는 이슈는 일차적으로 팀장에게 발제한다. 시니어 기자인 팀장이 판단했을 때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팀장이 편집회의에서 대리 발제한다. 주니어 기자의 발제는, 정작 이슈를 다루고 싶어하는 기자가 부재한 자리에서 제 3자의 입을 빌어 논의되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애초에 편집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팀장 선에서 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니어 집단이 편집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에 주니어 기자들의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이 원하는 이슈가 다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시니어 기자들이 뉴스타파를 원하는 이슈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공조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주니어들은 "열개 이상 발제했을 때 하나 하면 다행이다"라고 인식하는 간극이 존재한다.

G : 뭐 특별한 케이스는 없었다. 내가 발제한 건 다 했다.

A : 나는 뉴스타파만의 시각으로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배도 공감하면서, '이거 해야하지 않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배가 있어야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다. ... 아이템이 선정되는 게 쉽지가 않다.

시니어 기자에게 발제한 이슈를 다루지 못하는 게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주니어 기자에게는 일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니어 기자들 사이에서 선배 기자가 준 이슈를 취재하게 되었다는 "총 맞았다"라는 표현에서 자조적으로 드러난다. 시니어 기자란 편집회의에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총을 맞지 않는" 기자다. "총을 맞는다"는 표현은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데, 애초에 "총을 맞지 않은", 스스로 발제한 이슈를 취재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거니와 기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니어 기자가 원하는 이슈는 오직 해당 이슈를 중요하다고 공감해주는 시니어 기자가 있을 때에만 취재 가능하다.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 간의 차이는 이들이 경험해야 하는 데스크킹의 강도와 데스크킹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시니어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을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고 논의하는 데 반해, 주니어 기자의 경우 해당 이슈를 끌고 가는 선배 기자, 속한 보도팀의 팀장,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EP, 대표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데스크킹을 거쳐야 한다. 주니어 기자들은 이를 "다단계 데스크킹"이라고 지칭한다. 그 결과 시니어 기자들이 데스크킹을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것에 반해, 주니어 기자들에게 데스크킹은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관문이며 종종 기자의 주관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인식된다.

E : 검증하고. 이 부분은 빠자.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 뭐 당연히 그거 가지고 이제 데스크하고 이야기를 한다. 확인 안 된 이야기는 안 해야 하니까.

C : 시니어 기자는 십 몇 년 썩 한 사람들이다. 다른 데 가면 자기네가 데스크하는 사람들이다. ... 시니어 기자들끼리는 수평적으로 상호검증하고, 대표가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 이게 세 사람이 (데스크킹을) 하다 보면 기자 생각에 약간 재미 있다 싶어서 넣은 것들이 ... 1 단계, 통과. 2 단계, 약간 바꿔서 순화. 3 단계에 가서, '애매한데?' 하면서 빠지는 거다. 그럼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기자 입장에서는 김이 빠진다. (데스크킹) 과정에서 여러 실수들이 보정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었다 ...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험할 의욕이 약간 사라진다.

물론 도드라지는 경력 차이가 존재하는 뉴스타파가 이 정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언론사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전문적인 조직은 훌륭한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에게 떳떳한, 분명한 선후배의 위계질서를 갖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입구에는 리영희 대기자, 회의실에는 송건호 대기자와 같은 한국 언론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의 이미지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리영희 기자의 경우,

2012년 1월, 뉴스타파의 첫 번째 보도에서부터 2012년 12월 14일 보도까지, 선생의 인터뷰 육성이 마치 뉴스타파의 로고송처럼 사용될 만큼 이들에게는 훌륭한 선배로 기억된다. 언론인의 양심이 무엇을 뜻하냐고 묻자 뉴스타파의 한 시니어 기자는 언론인의 양심이란 "나의 뒤에 있는 후배가, 나의 뉴스를 읽고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뒤를 따라 이런 정도의 취재와 조사로 이 정도의 보도를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뉴스타파 조직체 안에 존재하는 시니어-주니어 사이의 간극은 뉴스타파에 특수한 것이 아니라 언론계에서는 일반적인 선배-후배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부정하며 성립하기 힘들다. 또한 모름지기 훌륭한 기자가 되는 것은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 남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언론인의 정신은 선배들에게서 물려받았고 후배들에게 넘겨주게 될 무엇이다. 이러한 내리 흐름 속에서 주니어 기자들은 선배들로부터 보도를 위한 기술보다도 언론인으로서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선후배 간의 위계가 언론 일반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뉴스타파의 암묵적인 위계질서 역시 질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의 시니어-주니어의 간극은 일반적인 언론사의 선후배 위계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우선은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의 위계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으로 드러나, 말 그대로의 간극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 사이의 긴장은 이 둘을 매개할 수 있는 중간 연차의 기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언론사는 매 해 또는 격년으로 신인 기사를 모집함으로써 조직 내 기자들의 경력에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한다. 또한 연차가 늘어날수록 기자의 수가 줄어드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반면 뉴스타파의 취재인력 중 2/3 정도의 기자들이 시니어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언론사는 연속적인 위계를 이루고 있고, 다수의 후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후배가 직속 선배에게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한 면이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이라는 두 개의 집단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특히 주니어 집단 중 일부는 이러한 간극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한다고 불

만을 갖고 있었다.

중간 연차 기자의 부재와 이로 인한 불통은 뉴스타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낳는다. 첫 번째는 조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무 명 남짓한 취재인력으로 구성된 이들이 조직의 규모 때문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부담스럽다고 주장할 순 없다. 또한 기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데스크와 언론조직에 저항하던 이들에게 조직 구성원들 간의 민주성은 조직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뉴스타파만큼은 구성원들 간 평등한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C : 그런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 세세하게 다 반영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배들끼리 모여서 편집회의를 하는 부분들, 그런 건 사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뉴스타파는 평등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다... 불만스럽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충을 맞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기자들의 의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니어 기자들이 본인이 발제한 의제 언론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다루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경험은 보도에 대한 갈등을 낳을 것이고 조직에 대한 불만을 양산한다. 이러한 면에서 뉴스타파는 대안언론이 아래에서부터의 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박선희, 2001)와 차이를 보인다.

B : 교육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계속 그거만 하면 안 좋은 것 같다.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기사에 대한.

중간 기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시니어 집단과 주니어 집단의 간극 문제는 뉴스타파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주니어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노조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뉴스타파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모든 취재진들이 참여 가능한 기획회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관찰 기간 동안에는 편집회의만 이루어졌으나, 9월 경부터 기획회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10월 말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기획회의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참여 가능 여부와 별개로 과연 기획회의에서 주니어 기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노조의 활동 역시 아직은 확인하기 이른 수준이다. 그러나 주니어 기자의 전문성을 지켜내고 또한 길러내고자 하는 인식은 주니어 집단과 시니어 집단 모두에게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이 최적화된 뉴스타파만의 조직을 찾기 위한 실험으로 이어진다.

F : (주니어 기자들을) 빨리 '그들 중 하나' 로 만드는 게 중요해 진 거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을 좀 시키자, 교육이라는 게 딱 게 아니라 경험을 좀 하고, (보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누가 옆에서 지도해 주는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다. 얼마 전에 조직 개편도 했고, 이제 그런 것(교육)도 다 필요 없고, 이제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됐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 조직의 또 다른 특성은 잦은 조직 개편이다. 한 주니어 기자는 뉴스타파에서 일한 3년 여의 기간 동안 네 차례의 조직 개편을 경험했다.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조직인 만큼 하나의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았고 최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고안해내고 반영한다.

그 결과 다른 언론사에서는 보기 힘든 실험적인 조직 형태가 태어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연구자의 관찰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EP와 팀장이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시니어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취재 1팀, 주니어 기자들로 구성된 취재 2팀이 존재했으며, 각 팀에는 시니어 기자인 팀장이 존재했다. 팀장은 기자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초기 데스크킹을 맡는다. 팀장 외에도 EP(Executive Producer)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뉴스타파에서 송출되는 모든 기사와 방송의 책임자이다. 두 명의 EP는 각각 "본방송", 수시로 올라오는 기사 및 방송을 맡는다. 팀장과 EP가 별도로 존재하

는 시스템은 기자가 일하는 방식과 PD가 일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다른 언론사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뉴스타파의 조직 운영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후원자를 다루는 조직적 차원의 업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후원자들이 이들의 유일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선에서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뉴스타파 보도에 관심을 가질 가장 우호적인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조직 운영에서 후원자와의 상호작용이 가시화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다만 자들은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상호작용 하거나 설문조사, 또는 뉴스타파가 공식적 차원에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도 콘텐츠의 업로드 내역을 알려주는 정도다. 후원자들과의 모임을 기획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아주 가끔 후원자가 뉴스타파를 찾아와 먹을 것을 주고 가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4절 뉴스타파의 대외관계(Extramedia)

뉴스타파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들에 의한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 3만 5천 여 명의 후원 회원이 뉴스타파를 후원하고 있다.

후원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언론 투쟁의 과정에서 직접 경험했던 바에 근거했다. 2011년 12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000번째 위안부 수요집회가 있었다. 당시 온라인 상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동을 위한 승합차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활동이 이루어졌고, 2주 만에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모였다. 희망승합차를 위한 모금활동이 뉴스타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루어졌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경험이 이후 2012년 7월 시작된 후원 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뉴스타파 창립에 함께했던 다섯 명의 기자 중 한 명인 박대용 기자가 당시 모금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방송 제작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던 과거에는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광고에 의지하지 않기 힘들었다. 그러나 소규모의 인력으로 팟캐스팅이나 유튜브, 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들에게는 굳이 거대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의 유입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컸다. 저널리즘은 뉴미디어와 융합하면서 전통적인 수익모델로부터 분리되었다. 따라서 후원 시스템은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행위와 광고의 분리를 뜻한다. 융합(converge)은 분리(diverge)를 전제한다.

뉴스타파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은 저널리즘 그 자체와 광고를 통한 수익모델을 분리하여 사고하였다. 애초에 투쟁의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한 후 6개월 간을 방송발전기금에 의존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다. 방송발전기금이 동나고, 뉴스타파가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한 언론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자 이들은 후원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우선 후원 시스템으로 뉴스타파라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타진해야만 했다.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뉴스타파 이용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10여 명의 작은 조직 정도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판단하게 된다.

사실 후원 그 자체만을 보면 언론사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1974년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시민 개개인들은 자유언론을 수호하기 위한 개인광고 형태의 후원을 해왔다. 지금도 일부 일간지를 읽는다는 것은 해당 일간지의 보도를 정말 구독한다기 보다는 그들의 보도 행위에 대한 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뉴스타파의 후원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이들이 회원들로부터의 후원을 지속적이고, 유일무이한 재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스타파에는 광고가 없다. 오로지 매 달 후원금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후원 시스템의 영향력은 유사한 시기에 출발했던 국민TV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TV는 추구했던 가치와 조직 구성원의 특징, 처해 있던 언론 환경 등이 뉴스타파와 유사했다. 뉴스타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들이 재원 문제를 협동조합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관찰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이후 국민TV 보도에 정파성이 짙어지고 기자의 보도 내용에 대한 데스크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편집권

독립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TV 노조는 47일 간의 제작거부 파업을 치러야 했다. 국민TV의 탄생을 지켜봐 왔던 뉴스타파는 어떤 면에서는 경쟁하는 언론사였으며, 뉴스타파의 창립 멤버였던 노종면 기자가 참여했던 조직이었기에 뉴스타파는 국민TV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취재진들과 국민TV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뉴스타파와 국민TV가 걸었던 노선의 차이가 후원 시스템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었다. 채용 확보 방식이야 말로 뉴스타파와 국민TV의 가장 큰 차이였기 때문이다. 국민TV의 경우, 협동조합원들과의 잦은 상호작용과 동등한 발언권은 특정 조합원에 의한 보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었다.

H : 국민TV도 대안언론이라고 해서 나왔으면, ... 다른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세상을 바꾸려고 나온 게 어쨌든 국민TV다. 그런 면에서 뉴스타파랑 똑 같다. 근데 협동조합 모델을 채택하면서 거기서 봉착하게 된 딜레마가 ... (협동조합은)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되는 뭔가를 줘야 하는 거다. 조합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하는 거다. 국민TV가 처음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 새누리당 의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앉히려고 하면 조합원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다. '내가 그 사람 보려고 너희들한테 출자했는 줄 아냐' 이러면서 ... 협동조합 모델이 되면서, 정부나 기업의 광고 이런 압력은 사라진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됐지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정파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TV에 대한 관찰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힘들다. 다만 이러한 발언에서부터 뉴스타파가 정치 및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시민들과의 모종의 연대를 이루는 것은 결국 뉴스타파의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후원 시스템이야말로 편집권의 독립을 달성하는 데에 탁월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뉴스타파가 후원자들과 유지하는 관계는 매우 독특하다. 이들은 누가 후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후원자들을 염두에 두지만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바라는 보도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 다만 정통 언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후원자들이 기존의 언론사를 부정하는지, 누가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더군다나 뉴스타파가 보도한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후원자의 수를 밀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재가공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뉴스타파의 보도가 후원자 및 콘텐츠 이용자에게 미치고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를 두고 한 취재진은 '뉴스타파 후원자들은 후원은 하지만 보지는 않는다'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의 후원자들은 대개 이념적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것이며,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원자의 정치적 편향이 뉴스타파의 보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뉴스타파가 후원자들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를 가장 전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소위 "권은희 보도"다. 뉴스타파 기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보도는, 과연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뉴스타파의 노선과 일치하는가를 두고 작은 논쟁을 야기했다. 실재 "권은희 보도" 이후 뉴스타파 1000 여 명의 후원회원이 빠져나갔고, 뉴스타파가 후원자들을 배신했다는 내용의 비판이 쇄도했다. "권은희 보도"는 뉴스타파에게는 조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J : 자기 구미에 맞게 잘 해준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갑자기 권은희 보도를 하니까 아군에 총질했다고 하면서 맹 비난을 퍼부었다. 탈퇴한 사람도 많았고, 그 때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저 시각이 맞는 건가, 우리가 맞는 건가.

구성원들 간, 구성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권은희 보도"를 겪음으로써 뉴스타파는 후원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갖게 되었다. 후원자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편집권 독립을 위한 것이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맙게 여기되 거리를 유지하는 것, 언제나 소통하되 뉴스타파의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들이 후원자와 유지하려는 긴장관계다.

D : 후원자들 중에는 분명히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고, "새누리당 타파"같이 과격한 그런 성향들도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하면 정당 기관지 정도밖에 안 된다. "권은희 보도" 한 후에도 거의 천 명 정도가 빠졌고. 후원자가 다 빠지면 망하는 거고, 방송을 못 하는 거니까 (후원자를) 염두에 두기는 해야겠지만.. 그계 아이템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

F : 회원들을 위한 뉴스인가. 회원들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숙제로 남아 있을 거다. 회원들이 반대하는, 싫어하는 뉴스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다. 회원들이 왜 싫어할까 ...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야 하는 뉴스라면,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어겨 가면서까지 회원들을 위한 뉴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차라리 안하고 말지. 이 뉴스타파를 안하고 말지.

뉴스타파의 대외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타 언론사와의 관계이다. 조직으로서의 뉴스타파에게서 일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주류언론을 비판하는, 매체 비평의 태도다. 처음부터 주류언론이 처한 환경과 주류언론 내부의 자성 없음을 비판하면서 탄생한 조직인 만큼 이들이 다른 언론사들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주류언론의 보도를 비판적으로 논평하거나 또는 조직 운영에 내재된 모순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뉴스타파를 조금 더 들여다보았을 때에 보이는 것은 이들이 타 언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 구성원의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구성원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보았을 때에는, 뉴스타파의 기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뉴스타파의 자원이 된다. 대부분의 구성원, 특히 시니어 기자들의 경우 KBS, MBC, YTN과 같은 주류언론사에서 10여 년을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류언론사 기자들과의 친분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류언론사의 기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는 재보를 받기도 한다. 뉴스타파의 보도들 중에서는 취재원이 주류언론사의 기자이거나, 취재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기자가 취재원이 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특종은 모든 기자들이 바라는 바이고, 자신이 취재하던 내용을 다른 기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선의를 베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속상해 하면서도 뉴스타파에게 기사거리를 넘겨준다는 것은 그 기사가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의 데스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아예 KBS의 데스크를 다루는 직접적인 비판도 이루어진다. 물론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는 기자들도 많다. 그러나 주류언론사 기자들과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결코 적대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항상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주류언론의 조직 내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취재 불발은 종종 뉴스타파라는 대안적 창구를 통해 보도된다.

두 번째 특징은 뉴스타파는 주류언론을 비판하고 이들의 성찰을 촉구하기지만 동시에 주류언론이 확보하고 있는 언론에 의지한다는 사실이다. 뉴스타파의 영향력이 타 언론사의 것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취재진은 뉴스타파가 여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보도된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 등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포털의 검색 결과에서 뉴스타파가 잘 노출되지 않고, 관찰자의 관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후원회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뉴스타파에게는 주류언론의 여론 영향력을 이용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다른 언론사나 매체에서 뉴스타파를 인용하는 콘텐츠를 내보냈을 때 뉴스타파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E : 우리(영향력)은 깃털? 깃털 하나? ... 기자들이나 PD들은 ... 정보를 빨리 얻어야 하고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통로 역할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이 뉴스타파가 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H :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라든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보도. 조세피난처 보도. 세월호 보도가 우리의 대표적인 리포트들인데. 그것들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 받아썰다. ... 조세피난처 리포트는 우리가 기자회견 열고 다른 언론사들이 취재를 왔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우리한테 밖에 없었으니까. ...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도 트위터 분석한 ... 우리가 한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쓴 것을 받아 쓸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다시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이 트위터 분석해서 연계망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뉴스타파가 정말 제대로 탐사보도, 독자적 정보를 가지고 치고 나가는 성공한 보도들이 있다.

이는 현재 뉴스타파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이 의제설정에 있음을 뜻한다. 타 언론사가 뉴스타파를 인용할 만큼의 보도는 결국 주류언론이 감히 시도하지 않는 이슈 즉, 오랜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쉬이 다루지 못하는 사안을 다룸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 또다시 뉴스타파와 주류언론사들 간의 긴장관계가 다시 발생한다. 이들은 주류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이슈를 보도함으로써 언론사들이 이들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주류언론에 뉴스타파가 회자된다는 것은 이들의 주류언론을 견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주류언론과 공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타파는 주류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들로부터 지지 되는 특이한 위치에 존재한다. 또한 뉴스타파의 주류언론에 대한 생각 또는 주류언론과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는 이후에 다루게 될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뉴스타파가 정치 및 자본 권력과 유지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뉴스타파는 정치 및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며, 이들이 권력을 오남용 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정치 및 자본 권력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이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교류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언론이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출입처 시스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 기업인의 도움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주요 행정기구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힘은 매우 막강한 것이어서, 뉴스타파가 그들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관찰 기간 동안에 취재 연습을 하면서 다루었던 정보들의 상당 수도 특정 국회의원으로부터 구한 자료들이었다. 2015년 10월 25일 보도된 <국정화 비밀 TF팀 컴퓨터에 'BH'글자 선명> 역시 한 국회의원이 뉴스타파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취재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 뉴스타파가 정치 및 시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권력자는 취재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이는 이들이 중요한 지향으로 삼는 가치가 언론의 독립성, 특히 편집권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뉴스타파에서 공유되고 있는 조직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의해서 기사를 협상하거나, 기획이 가로막히는 등의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데올로기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의 대외관계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해외의 비영리 탐사보도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들은 ICIJ가 개최되는 곳에 가서 발표를 하는 등 탐사보도 매체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세계의 비영리 탐사보도 언론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들은 서로가 처한 상황들을 비교하고 취재 노하우를 공유한다. 조세피난처 보도가 보여준 것처럼 탐사보도의 속성상 다른 언론보도에 비해 국제적인 공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비영리 탐사보도를 내세우는 언론사가 뉴스타파 외에는 없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상당한 수의 언론사들이 존재한다. 뉴스타파는 해외

언론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적인 언론 환경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5절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Ideology)

뉴스타파를 작동하게 하는,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암묵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들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취재하고, 보도하기까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뉴스타파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들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뉴스타파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이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가?

여기에서는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개의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뉴스타파 그 자체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파트의 역할이다. 제시할 세 개의 개념은 독립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세 개념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단절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즉, 세 개의 개념으로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를 설명한다는 것이 뉴스타파가 세 개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연구자가 관찰한 결과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다음의 세 개 개념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판단했으며, 세 개념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매끄럽게 연결되어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작동한다.

첫 번째 개념은 정통 저널리즘이다.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널리즘 그 자체이다. 저널리즘 그 자체와 정통저널리즘을 구분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 언론 환경에서 저널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제한다. 저널리즘 그 자체를 실천하려는 숙련된 기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언론 환경에서, 뉴스타파는 정공법으로 승부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통 저널리즘, 즉 저널리즘 그 자체를 해내겠다는 것이다.

주류언론에 속한 기자가 저널리즘을 실천 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

한다. 행정적인 비효율성, 정치 및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데스크, 위계적인 조직 운영 등 이유는 다양하다. 뉴스타파의 이상은 주류언론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부정적 조건들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작은 조직인 만큼 취재를 위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기 보다는 직접 면대면 대화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동료 기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이슈를 발굴하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판단을 가장 중시한다. 내부 위계 관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실험한다.

정통 저널리즘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대안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은 <나꼼수>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기존 주류언론의 보도 행태와 정 반대의 태도 역시 비판한다. 나꼼수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었는지 모르나 그것이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력이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종편의 등장이 문제였다면, 나꼼수의 등장 역시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J : 나꼼수는 우리가 그 때 판단했을 때에는 그냥 쾌감이었다. 쾌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방식. 이거는 저널리즘의 발전을 두고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진실에 부합하고, 공정한 형태로 가 줘야 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대립으로만 돌아버렸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뉴스 자체에 대한 냉소만 깔려버리고 절대 긍정적이지 않을 거 같았다. ...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팬덤에 기반한 형태로 그런 토크쇼가 저널리즘 영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 ... 기존의 언론도 문제지만 대안언론으로 나오는 것들도 문제가 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거. 데이터저널리즘. 탐사저널리즘. 사람들에게 원본 그 자체를 분석해서 딱 보여주는 것(을 하기로 했다). ... 판단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탐사보도나 데이터저널리즘 등은 결국 제대로 된 보도, 정통 저널리즘을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뉴스타파에게 탐사보도는 저널리즘 그 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이라면, 탐사보도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탐사보도는 "차가운 얼음"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뉴스타파는 스스로를 "대안언론"으로 정체화하지 않는다. 대안언론으로 회자되곤 하는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을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주류언론의 대립(anti)으로 남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스스로를 주류언론에 대한 대립쌍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뉴스타파가 겪은 나름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뉴스타파는 분명 주류언론에서 해고된 몇몇 기자들이 꾸린 작은 조직으로, 다분히 언론 운동의 목적이 짙었다. 그러나 언론으로서의 장기적인 존속을 도모하는 지금의 뉴스타파에게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목적이 존재한다. 해직 기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온 기자들이다. 이들은 뉴스타파가 대안언론이었다면 결코 사직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바랐던 것은 저널리즘 그 자체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조직, 기자가 기자로서 꿈꿀 수 있는 좋은 보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지 언론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바라는 것은 주류언론과의 갈등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언론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G : 누구를 상대로 한 언론. 예를 들어서 KBS를 상대로 한 언론?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언론? 그런 언론이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언론은 너무나도 많다. 그런 거 하겠다고 조선일보도 있는 거고 한겨레도 있는 거고 경향신문도 있고 한 거다. 각자의 진영에서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 나는 그런 데는 관심 없다. ... 사실과 현실을 판단하고 보았던 언론이 한 곳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나는 그 기록자가 되고 싶다. 지금 주류언론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2~30년 후에는 분명히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한데,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서 나는 그만 둔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뉴스타파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 한국의 언론환경에서는 언론 운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정통 저널리즘 실천과 언론운동이 일치하는 환경인 것이다. 이는 앞서 한국사회의 언론 공정성의 실패가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데 봉사했던 과거의 역사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파적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력에서 기인한다는 분석과 일치한다(남재일, 2008; 이준웅, 2005). 정파적이지 않은 언론이 없다는 것이다.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언론들이 난무하는 와중에 정통 저널리즘을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이상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언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뉴스타파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두 번째 개념이다. 정통 저널리즘을 하겠다는 이들의 열망은 독립성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다. 정치 및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데스크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특정 세력과의 결탁을 철저히 거부한다. 따라서 기자가 판단했을 때 다뤄져야만 하는 사안은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다뤄진다.

뉴스타파의 2012년 보도는 리영희 선생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육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도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신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뉴스타파가 그들의 로고송을 구상할 때에 이들은 리영희 선생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들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선배로부터 본받고자 하며, 다른 이들이 그러하다고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을 선택했을 것이다. 해당 인터뷰에서 리영희 선생은 "나는 애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야. 이건 분명해. 소위 '애국' 이런 게 아니야. 진실이야"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것은 진실이며, 진실 추구는 국가의 요구와 별개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국가나 자본의 개입이 없어 기자가 원하는 보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강한 신념이 공유된다. 그리고 이는 정치 및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들에게 탐사보도란 어떤 언론사든 할 수 있는, 저널리즘 그 자체다. 이런 와중에 뉴스타파를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성이다.

F : 나도 삼성에 아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지만, '저기(뉴스타파에)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인식이 있다. 애초에 말할 사람이 많지도 않다. 김용진 대표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줄 사람인가? 비밀 언덕이 없는 거다. 그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 만들 때 그렇게 하겠다고 못 박고 시작한 조직이다. ... 말해봤자 될 리가 없다.

A : 사실 지상파 방송사 기자들도 다들 안다. 어떤 사안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자 개개인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방송에 못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다. 근데 뉴스타파는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한 것,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파고들 거다.. 돈과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으니까. ... 이미 어느 언론사나 탐사보도를 하고 있다. 추적60분도 다 탐사보도다. 그런 기능들을 난 언론사들이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다.

조직의 형태를 갖춰 나가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한 차례 언론사를 그만 두고 나왔던 경험이 있던 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취재진들은 원하지 않는 보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뉴스타파 역시 그만 둘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뉴스타파를 나가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조직 개편 시도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자가 본 현장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결국 뉴스 보도는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취재하면서 목도하고 깨달은 현실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J : 공정보도라는 것은 기자가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느낀 그것을, 끝까지 불씨를 살려 주는 거다. 그것을 외압에 의해서 쫓불을 꺼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세 번째 개념이 등장하는데, 공정성이 그것이다. 공정성은 앞서 정통 저널리즘, 독립성의 개념과 함께 맞물려 뉴스타파가 하나의 조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이해는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자가 현장에서 목도하고 느낀 바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기자는 대리경험하는 자이며 대중은 기자가 경험한 바를 통해 간접경험한다. 그렇다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용자가 기자의 대리경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질문을 더 발전시켜서 기자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며 누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뉴스타파가 갖고 있는 답은 특정 사안이 발생하게 된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맥락이라 함은 시공간의 확장을 뜻한다. 역사적 관점 안에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역학을 살핀다. 이들은 맥락을 따지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자는 따라서 현장의 맥을 짚어내는 사람이고, 그 결과 알게 된 진실에 대해 보도한다. 뉴스타파가 '월간지의 호흡'으로 오랜 기간 취재하는 것도 이러한 태도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 해 보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기초적인 것마저도 주류언론에서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뉴스타파 구성원들에게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질문인 "누구의 관점에서 공정성을 파악할 것인가"가 뉴스타파의 공정성 이해에 핵심을 이룬다.

뉴스타파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권력이 양산한 피해자, 소외된 자, 주변부 집단에 대한 시점에서부터 사안을 관찰한다. 약자의 존재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이들을 취재하는 것이 곧 권력 작동을 취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진실을 확인하는 데에, 뉴스타파 내에서 두 개의 태도가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대체로 시니어와 주니어 사

이의 간극과도 유사한 지형을 보인다.

첫 번째 태도는 입장 인식론의 강한 객관주의의 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자신이 갖춘 전문성에 상당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문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시니어 집단은, 소외된 사람들의 관점을 온전히 반영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들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권력의 주변부에 서서 보았을 때에도 판단의 주체는 기자 개인이 되어야 하며, 기자 개인의 인상과 느낌을 기자자신의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을 통해 알게 된 바가 있는데, 이를 보도하는 것은 있는 그 자체로의 현상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 : (세월호 보도의 경우) 유가족 편에서 하는 게 아니다. 유가족들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 거다. 그 사람들 말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서 나는 취재를 하는 거다.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가 취재를 하는 거다. 취재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다.

H :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를 다 했을 때에 아 이 사람이 억울하게, 달리 구제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약자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 그 했을 때에 이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안 한다 ... (권력이) 감추고 있는 것을 취재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약자를 양산했잖아'에 대해서 우리가 들춰내서 폭로를 하는 거다. ...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자들의 편에 선 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또 다른 일부 기자들은 무엇이 공정한 보도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도 당연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맥락을 종합하여 진실을 확인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진실을 확인한 이들에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현재의 언론 환경은 이미 불균형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언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전체 언론 환경을 두고 보았을 때에 공정한 것이라는 총체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언론 생태계에서의 소외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특정 집단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언론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C : 미디어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문제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일종의 여론 불균형이 있다고 본다. 언론이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소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표하고, 대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여론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한 방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을 감시해서 그 쪽의 힘을 떨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 감시해서 그 쪽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떨어져 가지고 오는 거다. 그런 작업이 이제 언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고 공정성이다.

B : 어떤 주류가 어떤 대변하는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면, 내가 다른 쪽을 이 전체 지형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드러내고 기사화하는 부분이 이 전체적인 공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기자로서의 통찰이 아닐까. 그게 어떤 큰 틀의 지향이라면, 뭐 기술적인 공정성은 뭐 저도 보수적인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일 때에도 최대한의 발언권과 그 사람의 논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을 때 기사를 쓰는 것이다.

약자의 관점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일부는 다만 사실을 취재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일부는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자는 주로 시니어 집단에서, 후자는 주로 주니어 집단에게서 나타난다. 시니어 집단에게서도 후자와 같은 관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는 두 개의 접근법을 모두 긍정하는 취재진도 존재했다.

두 가지 접근은 모두 권력의 의해 양산된 약자로부터 출발하는 보도를 한다는 공통기반을 갖고 있다.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약자의 관점과 분리되지 않는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대안언론의 공정성은 PD저널리즘의 형태를 띠며, 강한 객관주의의 진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총체적 접근법을 적용 범위로 삼는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뉴스타파는 그들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리관을 강조할 것인가 공정성의 적용 범위를 강조할 것인가를 두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약자의 시선에서부터 사회를 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저널리즘의 본령을 있는 그대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내며, 독립적이기 때문에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 뉴스타파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앞으로 되고자 하는 방향이다. 세간에서는 뉴스타파를 보고 불공정하다고 보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또는 최소한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는 공정하다고 확신한다.

F : (뉴스타파는 타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공정하다. 한 500만 배 공정하다. 당연하다. 고려해야 될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다. ... 이게 뭐 아주 훌륭한 언론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이 다른 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계속 조직이 커 가면서 유지가 되느냐, 지금의 공정함, 건강함,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한테도 그런 시험의 기간이 있을 거다 분명히. 언젠가는.

6장 연구 결론

이제까지 뉴스타파를 참여관찰하고 구성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개념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안언론, 이 논문의 경우 관찰 대상으로 설정한 뉴스타파의 조직 운영 및 뉴스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였다. 앞서 대안언론에 대한 개념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류언론과의 비교를 위해 Shoemaker & Reese의 다섯 가지 요인 위계모형을 틀로 삼아 비교한 바 있다. 동일한 틀을 뉴스타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표 7] 주류언론과 대안언론, 주류언론의 다섯 가지 위계 요인 모형

요인	주류언론	대안언론	뉴스타파
개인	엘리트주의(elitism)	보편주의(generalism)	엘리트주의(elitism)
	전문성(professionalism)	탈전문적(deprofessionalism)	전문성(professionalism)
	중립적, 정보전파(dissemination) 중심적	당사자 대항주의(adversery) 옹호적(advocacy)	해설적 설득적
미디어 관행	통일된 스타일	창의적 스타일	정통 보도 스타일의 변주
	전통 미디어를 제1창구로 함 객관주의 전략	뉴미디어를 제 1창구로 함 해석주의 전략	뉴미디어를 제 1창구로 함 자유주의 진리관과 강한 객관주의 혼재
	사후 보고적(reporting)	사전 동원적(mobilizing)	현장 보도 추구
	공공기관, 공인 대상 정보원의 발표에 의존	주변부집단, 피해당사자 대상 탐사보도 또는 독자기고	탐사보도 권력 핵심부 감시 주변부 집단에게 언론 제공 언론 대상 비평
조직	경제적 이윤 정향적 광고와 구독료에 의존	자본 독립적 회원 후원, 모금, 사재부담	자본 독립적 후원 시스템
	위계적 편집 시스템 위에서부터의 의제설정 체계화된 조직 운영	공동 편집 시스템 아래서부터의 의제설정 실험적 조직 운영	점조직적, 네트워크 조직 중간 기자의 부재 실험적 조직 운영
	작업 분담 개별 책임	공동 생산 집단적 책임	분업 체계가 흐림 개별 책임
	대외관계	시장 종속적	정파 종속적
이데올로기	법 해석의 경계가 분명	법 해석의 경계가 불분명	법 해석의 경계가 불분명 국내 언론과 비판적 공존 해외 탐사 보도팀과 연대
	객관성, 중립성 체제유지적	정파적, 편향적, 가치규정적, 체제전복적	정통 저널리즘 독립성 소외된 사람들의 관점 중시

뉴스타파는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오는 주류언론의 속성과 대안언론의 속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주류언론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며 강한 전문성을 띤다. 그러나 어떤 보도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것에 대해 확신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미디어 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주류 언론의 보도 양식을 상당 부분 차용하여 가져간다. 총 세 개의 꼭지를 가진 40여 분 짜리 프로그램을 앵커가 진행하는 방식은 전통적 PD저널리즘이 보여주었던 방송 내용과 형식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통적 방식을 변주하려고 한다. 사실을 취재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진리관과 강한 객관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탐사보도를 내세우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찾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거의 항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뉴스타파는 권력의 핵심부를 감시하고 주변부 사람들에게 언론을 제공하는 이슈들에 대해 보도한다. 언론을 비평하는 보도 역시 중요한 이슈를 이룬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후원 시스템의 존재가 가장 큰 특징을 이룬다. 뉴스타파는 후원시스템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이루고자 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네트워크 조직의 형태를 띤다는 것인데, 이는 기자 개개인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탓에 최소한의 분업만 이루어진 상황이고 취재진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기사는 데스크를 거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자 개인의 책임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니어 기자와 주니어 기자 사이에 위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대안언론의 장점인 평등한 커뮤니케이션과 아래서부터의 의제설정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최적화된 보도 시스템을 찾아내기 위해 조직 체계가 자주 바뀌는 실험적 조직 운영이 이루어진다.

대외관계의 차원에서는 광고를 받지 않고 여타의 수익사업도 하지 않으므로 후원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후원자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며, 후원자들 역

시 뉴스타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후원자와의 상호작용도 SNS 등을 통해 대화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편이다. 타 언론사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언론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존 체계가 형성된다. 이는 정치권과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보력을 취하면서도 종속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관계는 해외에 존재하는 다른 비영리 탐사보도기구들과의 관계이다. 뉴스타파는 해외의 탐사보도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저널리즘의 비전을 점치기 위해 노력한다.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들이 정통 저널리즘, 또는 저널리즘 그 자체를 추구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권력의 개입이 없는 독립적 언론 환경 속에서 이들이 진실을 접근하고자 할 때에 염두에 두는 것은 권력이 양산한 약자들의 관점에서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약자들의 관점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거나 또는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정성 인식은 약자의 관점에서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뉴스타파 안에서도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입장은 약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만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제적 진실을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한 언론이라면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관점은 대안언론의 진리관을 강조하며 강한 객관주의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소외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권력 작동의 양상에서부터 출발했을 때에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게 보다 강한 객관주의라는 주장을 뉴스타파 역시 공유한다. 약자를 취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실 그 자체를 목도하기 위함이다. 이 때에 실제적 진실을 목도하는 것은 기자 자신이며, 결국 기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뉴스타파의 경우 주로 시니어 기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

후자의 관점은 대안언론이 공정성을 적용시키는 범위를 강조하며, 언론 보도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중시한다. 총체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들의 입장은 보도 생태계 전체를 조망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사회 집단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공정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언론의 저널리스트는 전체 뉴스보도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목소리를 강하게 항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여긴다. 뉴스타파에서는 주로 주니어 기자들이 총체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합했을 때에 뉴스타파는 대안언론의 공정성 논의 중에서도 강한 객관주의 진리관과 공정성의 적용 범위인 총체적 접근법을 두고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두고 기자들 간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강조하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약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부터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룬다.

이들의 보도는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질적으로는 물론 양적으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기자가 여당 대표에게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의도가 있는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에게는 뉴스타파가 불공정한 매체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한결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여당의 당대표가 편한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스타파의 한국사회 언론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신랄하다. 정치 및 자본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주류언론에서는 공정한 보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평가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언론 보도를 보고 느끼는 바의 수준이 아니라, 주류언론 내에서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왔던 취재진 개개인의 경험이 녹아 있다. 이들은 수 차례의 언론 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했다. 거대한 언론 조직은 바뀌지 않았고, 불편한 기사를 쓰

면 잇선의 전화가 오거나 돈이 들어왔다. 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취재 내용이 데스크를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협상의 기술을 익혀야 했다. 원치 않는 보도를 해야 했고, 그걸 하고 있는 동료들을 지켜보아야 했다.

주류언론은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권력 감시를 포기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독립성을 잃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때에 상황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종속을 불러들일 뿐이다. 이들은 주류언론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정통 저널리즘을 할 수 없으며, 진실을 볼 수 없거나 설령 진실을 본다고 할지라도 보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의 공정성 이해가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뉴스타파의 공정성 이해는 두 가지로 나뉜다. 강한 객관성의 입장과 총체적 접근법이 그것이다. 이 둘은 모두 권력에 의한 불평등의 존재와 이데올로기의 작동,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약자의 관점에서부터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자의 입장보다는 약자의 입장에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쏠리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뉴스타파가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응논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사안의 공정성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제 3자만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든 상관 없이,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도를 할 수는 없다. 권력자를 비판했을 때에, 그는 당연히 불공정한 보도로 느낄 것이므로 당사자는 공정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공정성이 충돌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이해와 충돌한다. 공정성의 핵심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이 왜곡됨 없이, 정정당당하게 다뤄져야 한

다는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요청이 존재하므로, 제 3자만이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 3자보다도 더 공정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당사자보다 사안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없다. 또한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되었을 때에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도 없다.

두 번째 대응논리는 뉴스타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권력자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에 노출되어 식견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뉴스타파의 총체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일부 기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이기도 하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영향력이 작을 때에만 성립 가능하다. 뉴스타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는 힘들다. 뉴스타파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을 때에도 다양성을 위해 약자의 목소리가 주가 되는 보도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다양성 위해 약자의 입장에 선 보도를 한다는 것은 뉴스타파의 위치를 제한적인 것으로 국한시킨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기 쉽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욱 힘들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 하는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주류언론의 위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언론이 좁아지고 있다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언론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서라도 약자의 입장이 대변되어야 한다는 뉴스타파의 항변은 쉽게 무너진다. 뉴스타파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제시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뉴스타파가 특정 세력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응 논리가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논리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결국 뉴스타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주장이다. 기자가 현장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권력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진실을 드러내 보인다는 주장이다. 강한 객관주의의 진리관을 강조하는 것이 뉴스타파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판단

이다. 특정 세력을 옹호하면서 이들을 위한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뉴스타파는 자신들의 보도야말로 진실 보도임을 증명해야 한다. 권력이 만들어낸 무능과 부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고 이용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이용자들이 뉴스타파를 믿을 유인 동기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대안언론의 공정성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 제시한 바 있다. 저널리즘 기본 원칙의 복원을 위한 노력, 보도 내용의 책임 확보, 조직 운영의 민주성이 그것이다. 뉴스타파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는가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아무리 자신의 보도가 공정하고 진실하다고 강조한다고 하여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고 많은 사실들 속에서 기자가 무엇을 선택하여 어떤 식으로 편집하였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의심의 여지없이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통 저널리즘을 수행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 내용의 책임소지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한 번도 보도 내용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적 없으며, 보도되는 정보의 출처 또한 분명하다.

다만 마지막 기준인 조직 운영의 민주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뉴스타파는 대중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는 단순히 대중이 그들의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보이는지의 차원이 아니다. 대중이 뉴스타파를 얼마나 감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한국사회는 정파적이지 않은 언론을 만났던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에게도 동일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파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언론을 만나보지 않은 대중에게,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뉴스타파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성은 전문직주의의 회복과 병행되어야만 한다. 특정 세력만을 옹호하는 불공정한 언론이라는 인식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 언론 환경 전체를 향해 있다. 이것

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뉴스타파에게는 그들의 전문성을, 단순한 취재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윤리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뉴스타파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연구자는 뉴스타파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대중에 대한 약속을 담아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와 같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조직이 보여주기 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부에서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자문위원단의 조언을 받아 뉴스타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대중과의 약속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원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 '비영리 탐사매체'라는 정체화는 뉴스타파 자신에게는 유효할지 모르나 대중에게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자기 소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총 후원 금액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원 금액의 분포에 대한 것이다. 특정 세력으로부터 거대한 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 만약 대중이 뉴스타파의 재정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오히려 광고를 통해 재정 확보의 경로가 드러나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주류언론보다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뉴스타파의 비영리성이 진실되며 부끄럽지 않다면 후원 구조의 공개는 얼마든 가능하다.

본 연구는 뉴스타파의 언론 공정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언론 공정성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성의 정의에 대해 짧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조류들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대안언론에 대한 설명이야말로 현재 한국 사회의 논의에 적합할 것임을 보이고 대안언론을 정의하기 위해 Shoemaker & Reese의 다섯 가지 위계 요소 모델을 빌려 대안언론의 속성들을 주류언론의 속성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대안언론으로 뉴스타파를 선정하여 조직에 대한 참여관찰과 구성원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이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또한 무엇인지 답해 보았다.

한국의 주류언론은 대안언론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뉴스 타파 역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주류언론과의 대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을 거부하며, 독립성을 갖춘 정통 저널리즘을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들의 공정성은 사건의 실체를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뜻하며, 이를 위해서 약자의 관점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좀 더 나아가서 뉴스타파에는 집단에 따라 약자들의 삶으로부터 진실을 발견하는 것과 약자의 삶을 대변하는 것, 두 가지의 접근에 대한 강조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노정하고 있는 한계가 분명한 것 같다. 뉴스타파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에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이나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현재 뉴스타파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후원 구조를 공개하는 등의 민주성을 확보할 때에 가능할 것이다. 전문직주의에게 요구되는 대중과의 연대의식은 전문지식을 대중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조직 운영의 민주성 확보가 뉴스타파가 앞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지받을 수 있는, 흔들 수 없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인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한다.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뉴스타파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안언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이 논문은 이전 연구들을 종합하여 현재의 한국 언론의 지형도를 그려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앞서 국민TV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소위 대안언론들 간의 비교연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사회 대안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들을 추출함으로써, 서구의 대안언론 논의와는 다른 독자적인 이론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뉴스, 담론, 이데올로기*: 나남.
- 강형철. (2007).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성에 관한 연구. [Content Diversity of the Investigative Television News Magazine]. *한국방송학보*, 21(1), 7-46.
- 김민하, & 신윤경. (2011). 전문기자과 시민기자 블로그 콘텐츠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Journalistic Differences between Blogs of Professional Reporter and Citizen Reporter : Focused on Watchdog and Interactivity]. *한국언론정보학보*, 73-99.
- 김은규. (2006). 한국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과 추동 요인에 대한 고찰. [The Transformation of Alternative Public Sphere and its Motive in Korea]. *한국언론정보학보*, 87-114.
- 김재영. (2014). 크라우드소싱 저널리즘의 성과와 과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Crowdsourcing Journalism : Case Study of The Hankyoreh and Newstapa's Projects]. *사회과학연구*, 25(3), 205-224.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The cultural particularity of objectivism in Korea : The structural feature of routine reporting activities of police reporters]. *언론과학연구*, 8(3), 233-270.
- 민인철. (2007). 인터넷 주류언론 기자와 인터넷 대안언론 기자의 독자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from mainstream and alternative internet news media toward their audiences : A case study on Donga.com and Ohmynews]. *한국방송학보*, 21(3), 204-240.

- 민인철, & 반현. (2006). 미국과 한국의 대안언론 수용자에 대한 온라인 서베이 사례 연구. [Online Readership Survey with Texas Observer in America and Ohmynews in South Korea : with Focus on Readers' Political Activities]. *한국언론학보*, 50(3), 262-287.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Characteristics of On-line Newspapers as an Alternative Communication Channel - A Content-Analysis of the Ohmynews]. *한국언론학보*, 45(2), 117-155.
- 박선희, & 주정민. (2004).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대안언론의 영향력. [The Influence of Alternative Online News Sites Dur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 Online Political Activities and Voting Behavior of Ohmynews Users]. *한국언론학보*, 48(5), 214-242.
- 박춘서. (2000). 시민운동과 대안언론. [Sozisle Bewegungen und theoretische Ansätze der Alternstivpresse - Unter besonderer Beträtigung der koreanischen Situation]. *한국언론학보*, 44(3), 190-221.
- 박춘서. (2006). *대항공론과 대안언론: 나남*.
- 원희영, & 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A Content Analysis on the Fairness of the Main News of Korean General Programming TV Stations : Centered around Main News During the 18th Pre-Presidential Election Period]. *한국방송학보*, 29(1), 117-148.
- 육서영, & 윤석민. (2013).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구성작가의 역할. [The Role and Influence of TV Writers in the Production of the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s]. *방송통신연구*, 127-155.
- 윤석민, 홍종윤, & 오형일. (2012). 멀티 플랫폼 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공영 방송의 역할. [The Essence of Public Interest and the Role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a Multiple Platform Era]. *방송문화연구*, 24(2), 7-35.

- 윤영철. (2004). TV저널리즘의 변화와 방송의 공정성 (pp. 215-252): 한국 언론학회.
- 윤영철. (2007). 민주주의 유형과 언론개혁. In 임상원 (Ed.),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나남*.
- 이규연. (2006). 탐사보도의 출범, 그리고 힘로. *관훈저널*(101), 112-119.
- 이민용. (2002). *1990년 이후 언론 변화를 위한 대안적 접근들의 이념적 동질성*.
- 이병섭. (2012). 팟캐스트의 규제 시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Critic of Regulation Trial of Podcast]. *언론학연구*, 16(3), 111-139.
- 이준웅.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The Advent of 'Critical Discursive Publics' in Korea and their Demands for Fairness]. *방송문화연구*, 17(2), 139-172.
- 이준웅. (2013). 언론의 공정성 규범과 실천 <방송 공정성 포럼> 세미나 보고서.
- 이준웅, & 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Textual Properties of 'Desirable News' - Fairness, Validity, and Sincerity]. *방송통신연구*, 9-44.
- 임영호. (1998). 한국 신문시장에서 진보적 대중지는 가능한가. *한국언론정보학보*, 189-215.
- 정동우, & 황용석. (2012).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인식 차이 연구, 20, 120-158.

해외 문헌

- Atton, C. (2005). Ethical issues in alternative journalism. *Communication Ethics Today*, 15-27.
- Atton, C., & Hamilton, J. F. (2011). *Alternative journalism* (이효성, Trans.): 커뮤니케이션 북스.

- Aucoin, J. (2007). *The evolution of American investigative journalism* (한국언론재단, Trans.): 한국언론재단.
- BBC. (2007). From Seesaw to Wagon Wheel: Safeguarding Impartiality in the 21st Century.
- Carey, J. W. (1986). The dark continent of American journalism. In R. K. Manoff & M. Schudson (Eds.), *Reading the news* (pp. 146–196): Pantheon Books.
- Crane, J. G., & Angrosino, M. V. (1996). *Field Projects in Anthropology: A Student Handbook* (한경구 & 김성례, Trans.): 일조각.
- Curran, J. (2002). *Media and power*: Routledge.
- Dahlgren, P. (2013). Online Journalism and Civic Cosmopolitanism: Professional vs. Participatory Ideals. *Journalism Studies*, 14(2), 156–171.
- Downing, J. (2003). Audiences and readers of alternative media: the absent lure of the virtually unknown. *Media, Culture & Society*, 25(5), 625–645.
- Downing, J. (2008). Social movement theories and alternative media: An evaluation and critique.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1(1), 40–50.
- Durham, M. G. (1998). On the relevance of standpoint epistemology to the practice of journalism: The case for "strong objectivity". *Communication Theory*, 8(2), 117–140.
- Eliasoph, N. (1988). Routines and the making of oppositional news.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5(4), 313–334.
- Epstein, E. J. (1973). *News from nowhere: Television and the news*: Random House.
- Freidson, E. (2001).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on the practice of knowle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uchs, C. (2010). Alternative media as critical media. *European Journal*

- of Social Theory*, 13(2), 173–192.
- Gans, H. J. (2004).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arcía-Avilés, J. A. (2014). Online Newsrooms as Communities of Practice: Exploring Digital Journalists' Applied Ethic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9(4), 258–272. doi: 10.1080/08900523.2014.946600
- Glasser, T. L. (1999).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Guilford Press.
- Goode, L. (2009). Social news, citizen journalism and democracy. *New Media & Society*.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cup, T. (2005). "I'm Doing this to Change the World": journalism in alternative and mainstream media. *Journalism Studies*, 6(3), 361–374.
- Harcup, T. (2011). Alternative journalism as active citizenship. *Journalism*, 12(1), 15–31.
- Harding, S. G. (2009).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조주현, Trans.): 나남.
- Iyengar, S., & Hahn, K.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 Iyengar, S., & McGrady, J. (2007). *Media politics: A citizen's guide*: W. W. Norton.
- Kperogi, F. A. (2013). News with Views: Postobjectivism and Emergent Alternative Journalistic Practices in America's Corporate News Media. *Review of Communication*, 13(1), 48–65.
- MacIntyre, A. (1997). *After Virtue* (이진우, Trans.): 문예 출판.

- McChesney, R. W. (1999). *Rich media, poor democracy: Communication politics in dubious tim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erritt, D. (1995).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 *National Civic Review*, 84(3), 262–266.
- Meyers, M. (1992). Reporters and beats: The making of oppositional news.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9(1), 75–90.
- Muñoz-Torres, J. R. (2012). Truth and objectivity in journalism: anatomy of an endless misunderstanding. *Journalism Studies*, 13(4), 566–582.
- Poell, T., & Borra, E. (2012). Twitter, YouTube, and Flickr as platforms of alternative journalism: The social media account of the 2010 Toronto G20 protests. *Journalism*, 13(6), 695–713.
- Reese, S. D. (1990). The news paradigm and the ideology of objectivity: A socialist at the Wall Street Journal.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7(4), 390–409.
- Rosenberry, J., & St John, B. (2010). *Public journalism 2.0: The promise and reality of a citizen engaged press*: Routledge.
- Ryan, M. (2006). Mainstream news media, an objective approach, and the march to war in Iraq.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1(1), 4–29.
- Schudson, M. (1981).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Basic Books.
- Schudson, M. (1997).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Social meanings of news: A text-reader*, 7–22.
- Schudson, M., & Anderson, C. (2009). Objectivity, professionalism, and truth seeking in journalism. In K. Wahl-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 88–101): Routledge New York.
- Shin, W. (2014). Being a truth-teller who serves only the citizens: A case study of Newstapa. *Journalism*, 1464884914525565.

- Shoemaker, P., & Reese, S. D. (2011). *Mediating the message*: Routledge.
- Sigelman, L. (1973). Reporting the news: An organizatio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2-151.
- Sterne, J., Morris, J., Baker, M. B., & Freire, A. M. (2008). The politics of podcasting. *Fibreculture journal*, 13.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60-679.
- Waisbord, S. (2009). Advocacy journalism in a global context. In K. Wahl-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 371-385): Taylor & Francis.
- Woodstock, L. (2002). Public journalism's talking cure: An analysis of the movement's 'problem' and 'solution' narratives. *Journalism*, 3(1), 37-55.

[첨부 1] 경제, 부동산, 재벌 이슈 보도 내역

	2012 1Q	2Q	3Q	4Q	2013 1Q	2Q	3Q	4Q	2014 1Q	2Q	3Q	4Q	2015 1Q	2Q	3Q	4Q	총합계
경제, 부동산, 재벌	1		4		2	27	3	7	14	6	5	24	13	12	8	8	116
가스요금 인상									1								1
계층구조 심화								1									1
론스타														5			5
민영화			1						1	2							4
민자도로													1				1
해외순방 경제성과														2			2
부동산 정책					1		1		2				4		3		11
서금회															2		2
서비스업 구조조정									1								1
성공불용자					1												1
우수조달물품제 허점								1									1
유통재벌			1									8					9
인천공항 지분매각			1														1
자영업																3	3
재벌								1	2	3		6	5			1	18
조세피난처						26		4	8	1		5		2			46
창조경제							1										1
철도 민영화			1					1			1						3
투자활성화계획											1						1
포스코														3			3
한미 FTA	1																1

[첨부 2] 공직감시, 의회, 정당 이슈 보도 내역

	2012 1Q	2Q	3Q	4Q	2013 1Q	2Q	3Q	4Q	2014 1Q	2Q	3Q	4Q	2015 1Q	2Q	3Q	4Q	총합계
공직감시, 의회, 정당	5	2	1	18	13	11	2	18	42	69	35	24	28	12	6	6	292
12.19. 대선				13													13
6.4. 지방선거										10							10
강원 FC 부패										1							1
공약점검					1				3				3				7
관변단체 보조금									4	2							6
국가보훈처				1		1				1							3
국방부 정치댓글												2					2
국정원 간첩조작												3					3
국정원 기록물관리							2										2
국정원 대선개입					6	6		7	3		2		2				26
국토부 정보 오류													1				1
국회의원 지위남용						1			5								6
권재진법무부장관					1												1
노기태 부산 서구청장 당선파티										1							1
도서지역 공항사업													1				1
독도 예산 낭비													1				1
박근혜대통령 책임회피														1			1
박근혜 정권 불통								2									2
방송심의기구 비평									4								4
방위사업												1				2	3
새마을운동중앙회													2				2
선거제도	3										1				3		7

성완중 리스트								2	2		
세월호 참사				27	13	3		3	3	49	
신년 기자회견								3		3	
야당비평			1							1	
예술리 메디슨								2		2	
영종도 카지노						3				3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1			1	
은인표 녹취록									2	2	
이명박 정부 비판	2	3	1	1			1	3		11	
인사검증			3	1		2	5	3		14	
전두환정권비판						2				2	
정부예산심의						2				2	
정수장학회	1									1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1	1	1		3	
천안함								2	3	5	
청와대 권력남용									1	1	
청와대 기록물관리			1							1	
추재엽 양천구청장 고문가해		1								1	
통진당 강제해산						1	1			2	
한수원								3		3	
행정기구 권력오남용	1	1	1	2	2	4	1	3	1	1	17
행정부 예산낭비							1	2		3	
후보검증			1			3			2	3	9

[첨부 3] 교육, 문화, 미디어, IT 이슈 보도 내역

	2012 1Q	2Q	3Q	4Q	2013 1Q	2Q	3Q	4Q	2014 1Q	2Q	3Q	4Q	2015 1Q	2Q	3Q	4Q	총합계
교육, 문화, 미디어, IT	9	6	6	10	2	5		13	4	12	12	16	6	2	4	11	118
교수권력오남용													2				2
교육정책	1	1	1			1		1	2								7
대학유신학칙						1											1
독립영화				1													1
서울대 총장선출											1						1
서울우유 갑질											2						2
실천하는 종교								2			1						3
언론비평	8	5	5	9	2	3		7	2	10		13	3	2	2	4	75
이중섭 박수근 위작 판결 의혹															2		2
표현의 자유											3						3
한국사 교육								3		2						7	12
한체대 연구부정											5	3	1				9

[첨부 4] 사법정의, 인권 이슈 보도 내역

	2012 1Q	2Q	3Q	4Q	2013 1Q	2Q	3Q	4Q	2014 1Q	2Q	3Q	4Q	2015 1Q	2Q	3Q	4Q	총합계
사법정의, 인권	10	2	1					9	2	2	4	1	3	3	4		41
군인권문제										1	3		1				5
민간인 불법사찰		10						5	1		1		2		4		23
밀양 송전탑								3		1							4
상이군인														3			3
서울시 인권현장												1					1
용산참사				1													1
유서대필 조작사건			2						1								3
한국여자축구연맹 파문								1									1

[첨부 5] 안전, 의료, 복지, 노동, 환경 이슈 보도 내역

	2012 1Q	2Q	3Q	4Q	2013 1Q	2Q	3Q	4Q	2014 1Q	2Q	3Q	4Q	2015 1Q	2Q	3Q	4Q	총합계
안전, 의료, 복지, 노동, 환경	5	17	11	2	2	4	6	17	13	2	14	19	8	4	4	3	149
4 대강	5		4			1	3	12	3			1					29
AI 살처분									1								1
가습기 살균제								1									1
검역주권		2															2
계층구조심화									2		2		1			3	8
국민연금												2					2
노동문제		3	5	2	1	3	2	2	4	1	2	5	3		3	4	40
마우나 참사													2				2
메르스														4			4
부산시 해수담수화사업															3		3
아라뱃길					1												1
오룡호 어선 침몰													1				1
원전정책		3									8	16	1				28
의료정보유출									1	1					1		3
의료정책								1	2	1							4
제주해군기지건설								1									1
조세정책													2				2
태안기름유출							1										1
화학물질사고											4		1				5
환경문제		9	2														11

Abstract

How Alternative Journalism Perceive and Practice Fairness

The Case Study of Newstapa

Kim Suji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lternative journalism is getting more influential in Korean society, fairness of alternative journalism has been caught up in controversy. 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how alternative journalism perceives and practices fairness which has been the major request of Korean society. Although fairness has been dealt with great number of researches, none was conducted to answer the question: "Is alternative journalism fair?" On the contrary, alternative journalism even seems to be treated like an exception in terms of fairness as discussions have been too scarce. As a result, related questions regarding fairness of alternative journalism have to be answered. By figuring out how alternative journalism perceives and practices fairness, this research shows alternative journalism has its own way of understanding fairness, which should be understood thoroughly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To answer the question, this research takes a point of view that alternative journalism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comparison with mainstream journalism. Applying “hierarchical model” of Shoemaker & Reese, which explored five different levels of message producing process in media organization, this research systematically compared alternative journalism with mainstream journalism. Features of alternative journalism are theoretically organized with the framework of hierarchical model.

As this research aims not only to discuss the essence of alternative journalism's fairness but to evaluation about it, criteria that can be applied to fairness of alternative journalism are drawn from preceding researches. Since the fairness of alternative journalism is different from that of mainstream journalism, new criteria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prevent the error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legacy media to the alternative journalism. Alternative journalism has different conditions from mainstream journalism in values,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resources. Therefore, the blanket application of previous principle is just an error which could shrink the potential of alternative journalism. Furthermore, as the lack of resources make it hard for the alternative journalism to achieve the principle, the fairness principle of legacy media cannot be forced to alternative journalism.

Three criteria are suggested. Alternative journalism should pursue revival of basic journalism principles aiming for democracy; Transparency has to be pursued so that facts and rumors can be distinguished; Interaction between people is necessary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alternative journalism. These three criteria are the minimum qualifications of alternative journalism. Only by following them, alternative journalism could be more influential.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tried to figure out the actual practicing system of alternative journalism and the perception of

fairness shared among the members of it. Fo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 case study about Newstapa which is small but powerful journalism organization launched in Korean society in 2012 by dismissed journalists. To observe the fairness of journalism organization, multi-dimensional approach is needed; journalists' faith and values, perspective, routines and norms of organization, interactions between journalists, desk process, and reports should be considered. Thu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descriptive analysis of reports to figure out how fairness is perceived and practiced in Newstapa.

The observed facts are systematically organized with the framework of hierarchical model of Shoemaker & Rees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tual case of Newstapa. Three criteria are applied to evaluate Newstapa, and its implication upon Korean society is discussed.

주요어 : Alternative journalism, Fairness, Newstapa, Hierarchical model, Strong objectivity, Public journalism, Participatory observation

학번 : 2014-20265